

제42회 시민의 날 기념

# 행복한 가정·인천사랑 대축제

일시 : 10월 14일(토) 오후 2시~오후 9시

장소 : 인천삼산월드체육관

## 1부 오후2시 제42회 시민의 날 기념식

## 2부 오후3시 3대가 함께 하는 가족합창대회

개막공연 (MC 개그우먼 박미선)  
10개 참가팀 경연 (군·구 각 1개팀)  
초청가수 공연 및 레크리에이션 (와일드캐츠, 신형원)  
시상 및 수상자 공연

## 3부 오후5시 인천사랑·가족화합 한마당

여는 마당 (건강 에어로빅, 가족 댄스)  
레크리에이션, 가족장기자랑, 인천사랑 퀴즈  
초청가수 축하공연 (MC 엄용수, 출연가수 LPG, 박진도, 유심초 등)

## 4부 오후7시 인천 청소년 문화 대축제

SBS 노홍철의 기쁜 우리 젊은 날 공개 방송  
인기가수 손호영, 거북이, 박정아, 무가당, 타이퐁, 정재욱, 크라운제이, 하동균, Trax 등

### 부대행사 : 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

가족대항 줄넘기, 훌라후프, 투호놀이, 페이스페인팅, 행복가정지킴이 서약  
군·구 보건소 프로그램  
무료 건강검진, 건강상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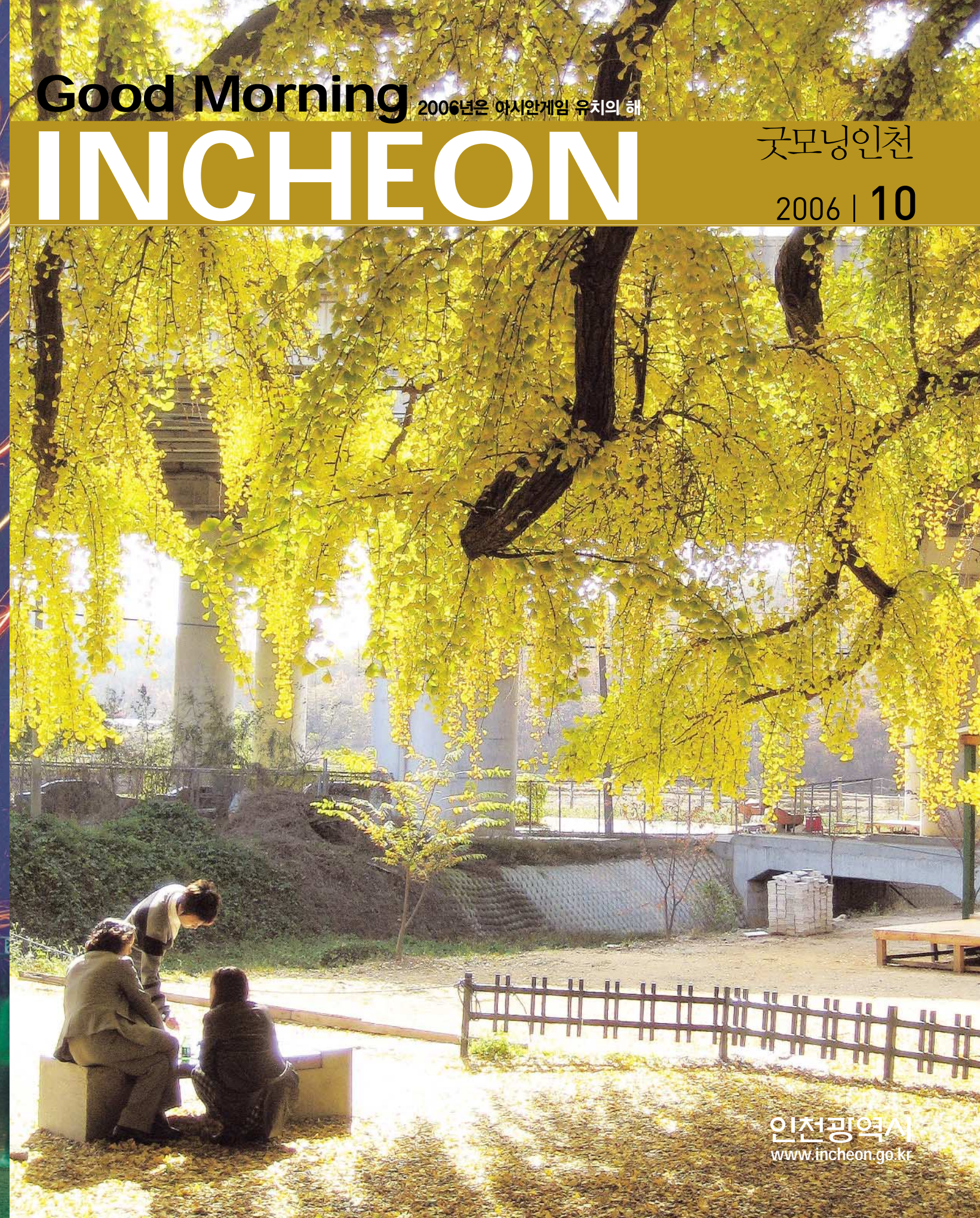
문의 : 시 가정청소년과(440-3940)

Good Morning 2006년은 아시안게임 유치의 해

# INCHEON

굿모닝인천

2006 | 10



인천광역시  
www.incheon.go.kr



# 아직도 돌아서 다니십니까?

천마터널을 이용하시면 빠르고 경제적입니다



부천 → 중동IC → 삼산지구 → 부평구청 → 대우자동차 → 백마장 → **천마터널** → 석남동 → 가정동 → 서인천C → 북항 → 청라도 → 영종도 → 인천공항

■백마장4거리 → 석남1고가 구간 비교

이용도로	거리	신호등	소요시간	연비	유류비	통행료	계
<b>천마터널</b>	<b>2.3km</b>	<b>2개</b>	<b>2분 정도</b>	<b>10Km/ℓ 이상</b>	<b>345원</b>	<b>700원</b>	<b>1,045원</b>
천마로	4.1km	13개	10분 이상	4.17Km/ℓ	1,475원	0	1,475원
차이	1.8Km	11개	8분 이상	5.83Km/ℓ	1,130원	700원	430원

※ (주) 본 자료는 특정일, 특정 시간대를 기준으로 실측한 자료입니다.



2006년은 아시안게임 유치의 해

## 굿모닝인천

2006.10 (통권 154호)



표지설명 \_  
장수동 만의골 은행나무

발행인 인천광역시  
편집인 공보관 이부현  
공보담당 사무관 유승준

편집장 유동현  
취재 편집위원 정경애 · 편집위원 김미희  
어시스턴트 유미옥  
사진 심영보 · 하정원(시 공보관실)  
김성환(자유사진가) · 김정식(자유사진가)

발행처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25 (구월동 1138번지)  
발행일 2006년 10월 1일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62800000-84900-42-81  
인쇄 인천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굿모닝인천〉은 <http://www.incheon.go.kr>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허락받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인천광역시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04 제5회 사천성의 맛과 맛, 그리고 중국의 4대 음식
- 06 인천-중국의 날 차이나타운에서 중국문화 맛보기
- 10 문화축제 OLD Chinatown
- 12 아이들과 동네한바퀴 | 21C 뉴실크로드 한중문화관
- 14 인천음식 요리조리 | 북성동 원조 자장면
- 16 이달의 공연 | 서울색소폰파티 가을의 유혹 외
- 18 뮤지컬 마리아 마리아
- 19 인천시립예술단 시월 무대
- 20 Festival! | 가을 속으로
- 22 시정소식 | 영종도에 국제전시장 들어선다
- 25 시의회 소식 | 제14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최
- 26 경제자유구역소식 | u-IT클러스터 추진 센터 개소
- 27 굿모닝時評 | 어르신은 '실버' 아닌 '골드'
- 28 굿모닝인터뷰 | 인천광역시의회 이근학 운영위원장  
인천광역시의회 최병덕 기획행정위원장
- 30 인천을 재생한다 | ③ 내항 주변 사업
- 32 가을테마 | 도심속에서 추(秋)락을 만나다
- 36 문화마을 순례 | 인천광역시 한국수채화협회
- 38 현장속으로 | 인천시민 행복한 나눔장터
- 40 인천200% 즐기기 | 남동구 만의골 <겉고 싶은 거리>
- 42 김치찰각
- 43 인천시민은 국제시민 | 테이블 매너의 꽃, 와인
- 44 Youthzine | 2006 한 · 중 청소년교류한마당 홈스테이체험기
- 45 야심만만재테크 | 가을은 결실의 계절... 투자는?
- 46 사람 하나 만나고 싶다 | 인천시청에서 만난 '미스 사이공' 위엔 칸 링
- 50 글마당 생각마당 | 이번달 주제 '웃'
- 52 Info Box | 2006 추석맞이 민속 문화 축제 열립니다 외
- 58 세 · 상 · 만 · 사 · 仁 · 川 · 萬 · 寫 | 얹히고설킨 세상살이







## 제 5 회 인천 - 중국의 날 문화축제

사천성의 멋과 맛, 그리고 중국의 4대 음식

# 오라, 차이나타운으로 가자, 중국 속으로

기간 : 10월 13일(금) ~ 15일(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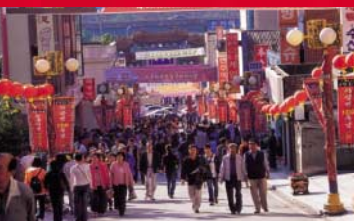
장소 : 인천역앞 ~ 인천중부경찰서 구간 도로

문의 : 시 문화예술과 (440-4022~5, [www.inchinaday.com](http://www.inchinaday.com))

글 • 정경애 (본지 편집위원) | 사진 • 김성환(자유사진가)



문화축제 제5회 인천-중국의 날 문화축제 제5회 인천-중국의 날 문화축제 제5회 인천-중국의 날 문화축제 제5회 인천-중국의 날 문화축제 제5회 인천-중국의 날 문화축제 제5회 인천-중국의 날 문화축제



일정	10월 13일 (금)	10월 14일 (토)	10월 15일 (일)
시간	10월 13일 (금)	10월 14일 (토)	10월 15일 (일)
13:00~14:30	이벤트 한마당 (중국만두 먹기, 자장면 빨리먹기)		
15:00~16:00	중국 무술 공연 (권법, 격파, 검술, 봉술, 약속대련)		
16:00~17:00	공연준비 및 리허설	한국 전통예술단 공연	중국 사천성 예술단 고 별 공연
17:00~18:00		중국 전통예술단 공연	
18:00~18:30	식전공연	공연준비	
18:30~19:00	제5회 인천-중국의 날 문화축제 개막식		
19:00~20:30	경축공연 (한·중 화합의 밤)	중국 사천성의 밤	
상 설	체험행사 : 중국 음식체험(중국 4대 요리 체험), 중국 공예체험, 중국의상 체험, 중국 전통차(茶)체험, 중국 용춤체험, 중국무술체험 참여행사 : 중국어 한마당(중국어 노래교실, 중국어 배우기, 중국영화상영) 전시행사 : 중국 사천성 홍보관, 인천시 홍보관, 중국전통물산전, 식재료 조 각전 등		



인천에 자리 잡은 또 하나의 중국, 차이나타운. 1884년 청국조계를 설치하고 중국인들이 살기 시작한지 120년이 지난 그곳에서 인천과 중국의 지속적인 문화 교류와 두 나라의 우호를 다지기 위한 다섯 번째 인천-중국의 날 문화축제가 열린다. 올해 축제는 중국 사천성의 종합문화예술단을 초청해 문화를 알리고 사천성의 유명 음식, 관광지, 관광 상품 등을 소개하는 '사천성 특집'으로 열린다. 매콤한 사천자장의 맛처럼 깊고 짙은 중국 향취에 빠져보자.

## 눈과 귀가 '핑호아'

개막축하공연 (한·중 화합의 밤)

슈퍼주니어, 강타&바네스, 장나라 등 한류의 중심이 되는 인기가수, 한국전통공연단, 중국 사천성 예술단이 펼치는 축하 무대

중국사천성의 밤·중국 전통예술단 공연

중국 사천성 예술단의 화려하고 다양한 전통예술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무대

한국전통예술단 공연

행사장을 찾은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인천시립무용단이 전하는 한국 전통 무용의 아름다움

중국 무술공연

권법, 검술, 봉술, 격파, 약속대련 등 중국의 문파별 전통무술의 소개와 각종 무기를 활용한 다양한 무술 시연

## '왕서방' 되는 즐거움

중국4대 요리체험

중국의 대표적인 4대 요리인 사천, 광둥, 북경, 상해 요리를 소개하고 각 요리별 대표 음식을 선별해 행사장에서 맛볼 수 있는 기회

중국공예체험

면소(밀가루 공예), 설탕공예, 낙화(인두를 이용한 그림), 동물초편(풀을 이용한 공예), 소형풍쟁(작은 연에 그림그리기), 전지공예(종이공예), 내화(병 안

에 그림 그리기) 등 화려하고도 기묘한 중국의 공예를 중국 현지 예인들이 직접 선보이고 관람객이 체험하는 마당

중국의상체험

중국의 다양한 민족별 의상을 직접 입어보고 체험할 수 있는 코너. 중국 황제·황비도 돼 보고 소수민족 의상을 입어보면서 중국 배경으로 사진 한 장 찰칵

중국차(茶)체험

하루 두 차례 다도예인이 직접 보여주는 중국 다도 시연회. 다양한 중국의 전통차를 마시며 음미

중국용춤체험

인천화교중산학교 학생들이 참여해 용춤을 추고 현장에서 관람객이 직접 참여해 용춤을 배워 볼 수 있는 기회

자장면 빨리먹기·중국 만두 많이 먹기 대회

중국의 날 문화행사의 '대표 이벤트'가 된 자장면 빨리 먹기대회와 중국 만두 누가누가 많이 먹나 대회가 함께 열린다.

이밖에

중국어 노래교실, 중국어 배우기, 중국영화상영 등이 어이저는 중국어 한마당과 중국 사천성 홍보관, 중국 전통 물산전, 식재료 조각전, 인천시홍보관 등도 둘러볼 만 하다.



## 가족을 위한 추천 코스 For Family

올해 축제는 가족들이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코너들이 여럿 마련된다. 우선 우리 시와 중국 사천성의 홍보관을 둘러보며 두 도시에 대해 익힌다. 그리고 아빠는 자장면 빨리 먹기 대회, 엄마는 중국차, 아이는 용춤을 체험하고 각자의 느낌을 나누어 보자. 그리고 우리시 시립무용단의 공연과 사천성 예술단의 공연을 관람하며 두 나라 문화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발견해 본다. 중국황제, 황비의 옷을 입고 황제의 가마를 타고 사진 한 장 찍으면 즐거운 추억이 오래 오래 남을 듯.



## 매콤~ 중국 사천성 요리

중국 남서쪽 양쯔강(揚子江) 상류에 있는 성(省)으로 48만8천 ㎢의 면적에 인구가 8,329만 명에 이른다. 양쯔강을 비롯해 민장강(岷江), 튀강(彝江), 자링강(嘉陵江)등 4대 강이 성내를 흐르기 때문에 '四川'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성도(省都)는 청두(成都)이다.

중국 음식하면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사천성 요리이다. 풍부한 지하자원으로 만든 각종 음식은 광둥성 요리와 함께 우리나라에도 많이 알려져 있다. 다른 지역의 음식과 특이한 점은 다소 맵다는 것이다. 사천성의 음식이 매운 것은 지역적 특성이 있는데 사천성의 수도인 성도를 비롯하여 기온이 습하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매운 것이 특징이다.







차 이 나 타 운 에 서 중 국 문 화 맛 보 기

## 보이차 향에 취하고 홍가권에 빠지고

붉은 색이 선명한 기둥에 황금색 용이 용틀임을 하고, 까만 지붕엔 붉은색 등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다. 거리에서는 지글지글 춘장 볶는 냄새가 진동을 하고 희미하게 재스민차 향도 섞여오는 듯한데 어디선 가는 아래향의 노랫가락이 흘러나온다. 행인을 향해 빠르고 높은 어조로 말을 섞는 상인들. 마치 이역만리에라도 온 듯한 느낌이다. 차이나타운은 그렇게 우리 인천의 한 풍경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차이나타운이라고 하면 흔히 들 자장면을 떠올리지만 거기서 멈춘다면 아쉽다. 그곳에는 중국대륙의 문화와 예술, 교육이 살아 숨쉬고 있다.

글 • 정경애 (본지 편집위원) | 사진 • 김성환(자유사진가)

### 황비홍 제자 돼 볼까

차이나타운이라고 하기에는 좀 떨어진, 파라다이스 호텔 근처에 '정무문(精武門)'이라는 무술도장이 있다. 좀 허름한 건물 2층에 세 들어 있는 이 무술 도장은 외관과는 사뭇 다른 '실력'을 자랑하는 중국 무술의 산실이다. 남파 소림권의 분파인 홍가권(洪家拳)의 대가 필서신(畢庶信)관장이 이곳에서 정통 중국 무술을 가르치고 있는 것. 필관장은 한국에서 유일한 화교 출신 현역 무술 지도자로 황비홍-임세영-장극치-필서신으로 이어지는 황비홍의 4대(代) 제자다.

주말이면 이곳에 서울·대전 등에서 중국 무술을 배우러

는 이들의 발길이 이어진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쿵푸(우슈)가 아닌 중국전통무술인 홍가권과 사자춤, 용춤 등 중국 민속문화를 배우려는 이들이다. 한때 문전성시를 이루던 체육관은 지금은 평일에는 인적이 드물 정도로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 필관장은 3개월간은 무료로 무술과 중국 전통 춤을 가르친다. 무술과 춤의 맛을 알고 더 깊이 빠지고자 하는 이들에게 비로소 수련비를 받는다.

사자춤, 용춤, 북춤 등은 3개월 정도 배우면 공연을 할 수 있고 초등학생부터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배울 수 있다. (765-4665)



### 보이차 한 잔에 신선되다

휘황찬란한 붉은 등을 내건 거리 끝에서 중국차를 판매한다는 글자에 이끌려 '귀비기포(貴妃旗抱)'에 들렀다. 그곳에서 전통 중국차를 공부



한 원소흠(原所欽)씨를 만난 것은 행운이었다. 평소 중국차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원 사장은 5년 전부터 본격적인 차공부를 시작해 지난해에는 중국 항주(杭州)의 절강대(浙江大)에서 차 교육을 마치고 수료증을 받기도 했다.

귀비기포에 들어서면 우선 다양한 종류의 차에 먼저 놀란다. 주로 보이차가 진열대를 채우고 있다. 매장 한쪽에는 작은 테이블이 마련돼 있고 그 위로 다양한 다기(茶器)들이 놓여있다. 조그만 주전자에서 찻물이 끓고 주인 원씨와 마주 앉으면 풍부한 차 이야기가 시작된다. 100℃까지 물을 끓였다가 첫 번째 탕수는 버려야 하는 이유라든가 청차, 숙차, 산차 같은 차의 종류 그리고 대엽종, 중엽종, 소엽종 같은 보이차의 종류 등 차 이야기가 이어진다.

특별한 차 강의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차를 좋아하고, 차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원 사장과 차에 대해 대화를 나누며 정통 보이차의 향에 빠져볼 수 있다. (772-1887)



### 씨에씨에 라오슈

차이나타운에 화교중산학교가 있다는 것쯤은 웬만한 인천 사람이면 다 알고 있는 사실. 하지만 그 곁에 부속유치원이 있어 화교보다 더 많은 한국 아이들이 중국어로 노래하고 이야기하고, 공부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부속유치원은 작은반(5세)과 큰반(6세)으로 나뉜다. 유치원은 중국의 학제를 따라 9월에 새 학년이 시작된다. 이제 막 입학한 작은반 아이들 중 중국인은 5명. 나머지 30명이 한국인이다. 인천에, 그것도 북성동 주변에 모여 살고 있는 화교들을 가르치기 위해 문을 연 유치원이지만 화교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어 열풍이 불면서 중국인과 한국인의 수가 역전된 지는 이미 오래다. 큰반도 다르지 않다. 45명의 아이들 중 중국인은 10명 나머지는 한국인이다.

연수구 옥련동에서 아이들을 데리러 왔다는 이미자씨(45·연수구 옥련동)는 중산소학교 2학년인 딸과 유치원 큰반에 다니는 아들을 두고 있다. '왜 중산학교냐?'는 물음에 이씨는 "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좀 더 일찍 접하고, 무엇보다 아이들을 너무 혹사시키는 우리나라 교육현실이 싫어서"라고 단호하게 대답한다.

중산소학부속유치원의 교육은 우리나라 유치원과 크게 다르지 않다. 놀고, 노래하고, 그리고, 배우고... 이 모든 일련의 교육들이 중국어로 진행된다는 것뿐이다. 아이들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선생님은 쉼 없이 중국어로 말하고 설명한다.

한국보다 중국말이 더 편한 동네. 그 동네에서 한국 아이들은 조금씩 중국 사람처럼 말하고 생각하는 법을 배우며 '국제시민'에 한 발 다가선다.





## 한어 하오하오



한국 아이들이 중국말로 공부하려면 어찌 어려움이 없으랴. 중국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수업을 따라가기 힘든 것은 뻔한 이치. 그래서 중산학교 근처에 한국아이들을 위해 중국어로 수업하는 ‘한어교실’이 생겨났다. 아이들은 학교 수업을 마친 후 삼삼오오 한어교실에 모인다. 그곳에서 함께 숙제도 하고, 진도를 체크하기도 한다.

낮에는 화교학교 아이들을 위한 ‘보습학원’이지만 저녁이면 중국어 학원으로 옷을 갈아 입는다. 차이나타운에서 살아있는 중국어를 배워보려는 이들이 기대감을 안고 찾아왔다가 만나는 중국어교실이다. 초급반과 중급반으로 나뉘어 중국어 강좌가 진행되는데 대학 앞 등의 어학원이 시험이나 문법 위주로 강의가 진행되는 것과는 달리 회화 중심의 수업이 이뤄져 직장인들이 많이 찾는다. (763-0888)

## 인천살이 삼년이면 ‘니하오’가 저절로

경인전철 인천역에서 패루를 지나면 만나게 되는 북성동사무소. 기능은 일반 동사무소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중국어 좀 공부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북성동사무소는 특별한 곳이다.

북성동 주민자치센터는 ‘차이나타운’의 명성에 걸맞게 중국어프로그램을 특화해 운영하고 있다. 개설돼 있는 중국어반만 모두 6개. 성인을 대상으로 주간에 초·중·상급반이,

야간에도 초·중급반이 성인들을 위해 문을 열어 놓고 있다. 월요일과 금요일 낮에는 아동 중국어 초급반이 주민자치센터에서 열린다.

남구 도화동에서 이곳까지 중국어를 배우러 온다는 주부 김양희(38)씨는 북성동주민자치센터를 ‘중국어강좌의 꽃’이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대학에서 중국어를 전공했지만 결혼과 함께 잊고 살다가 여유를 찾고 다시 중국어를 공부하고 있다는 김씨는 일반 어학원을 마다하고 굳이 이곳에서 중국어 공부를 하고 있는 열성 학생이다. 고급반은 거의 프리토킹으로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사설 어학원에서도 배울 수 없는 수준의 회화를 이곳에서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때문인지 중국어 공부를 제대로 하려는 사람이라면 학원이나 문화센터 등을 다 거친 후 마지막으로 찾아오는 곳이 바로 북성동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이 김씨의 설명이다. (760-7960)

한편 차이나타운에서 한·중국 교류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한중문화관은 중국의 문화와 언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중국으로 가는 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중국어 어학강좌와 중국 문화강좌를 열고 있다.

중국어 어학강좌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운영되고 있다. 이 강좌의 특징은 살아있는 중국어를 배울 수 있다는 점. 초급과정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지만 언어를 어느 정도 익힌 후에는 차이나타운 내에 있는 음식점과 상점 등을 돌면서 실제로 중국어를 사용해 ‘생생’ 중국어를 체험하는 기회를 갖는다.

인천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중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단 선착순 마감이므로 서둘러야 한다. 11월과 12월에 진행될 2기 중국어 어학강좌는 10월 17일부터 21일까지 20명 선착순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760-7860)☀



# 인천에선 중국어가 이웃집 언어

앞바다만 건너면 바로 중국과 당기에 지리적으로는 물론 심리적으로 중국과 가까운 것이 바로 우리 인천. 그 덕분에 우리 인천에는 마음만 먹으면 큰 돈 들이지 않고 중국어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 주부들 오세요 부평구청

부평구청에서는 국제적인 감각을 갖춘 여성을 양성하기 위해 외국어강좌를 열고 있는데 특히 중국과 인접하고 있는 우리시의 특성을 살려 중국어강좌를 운영하고 있어 눈에 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계속된 중국어강좌는 지난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간 1단계 과정을 진행했다. 부평에 살거나 직장을 갖고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모집한 접수 열기는 뜨거웠다. 45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할 예정이었는데 모집 하루 만에 접수가 마감된 것. 미처 접수하지 못한 이들은 대기자 명단에 올려놓을 정도로 배우고자 하는 열기가 대단했다.

부평구는 이들의 열기에 부응해 3회 이상 무단결석을 하면 제척하고 대기자 명단에 있는 이들에게 교육기회를 주었다. 그 결과 10명이 중도 하차를 했고 35명이 무사히 1단계 과정을 마쳤다. 9월 15일부터 12월 14일까지 월, 수, 금요일 오전 9시 20분부터 80분간 진행되는 초급 2단계 과정은 1단계 과정을 마친 이들이 계속하게 된다. 중도 포기한 나머지 10명은 필기 테스트를 통해 성적 우수자로 차원했다.

부평구는 초급을 이수하고 수준 높은 과정을 원하는 수강생이 많아짐에 따라 내년에는 중급과정을 개설할 것을 검토 중이다. (509-6504)

## 사랑해요~ 중국어 시 교육청 중국어체험캠프

지난 8월 여름방학, 영종도에서 우리시 고등학생들은 중국어로 말하고 꿈도 꾸었다. 우리시 교육청에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두 번째 중국어캠프를 가진 것. 7월 31일부터 8월 5일까지 5박 6일 동안 영종도 외국어 수련부에서 열린 중국어 캠프에는 원어민교사 8명, 중국어교사 14명, 고등학생 92명 등이 참가해 함께 먹고, 자며 공부했다.

‘我愛漢語’라는 슬로건으로 전국에서 최초로 열린 이번 캠프는 1년 이상 중국 현지 어학연수 경험을 가진 교사들이 개인적으로 중국에서 사온 중국 물건들을 가져와 교실을 중국 소품들로 장식해 중국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자칫 딱딱하고 무겁게 느껴질 수 있는 캠프 분위기는 울긋불긋한 중국 장식품이 하나 둘씩 벽에 걸리고 전시되면서 화기애애하고 즐거운 분위기로 바뀌었다. 중국 전통 의상과 중국 소품들이 진열돼 자연스레 ‘중국전용구’가 조성돼 간이매점

등에서 물건을 사고팔면서 살아있는 중국어를 배우고 느꼈다.

오전 학습 역시 자연스럽기는 마찬가지. 최첨단 학습시설을 갖춘 교실에서 한 반에 10명씩 둘러 앉아 한국인교사, 원어민교사와 함께 학습해 체험 중심의 밀도있고 다양한 수업이 진행됐다. 현장학습 시간에는 차이나타운, 한중문화관, 화교중산학교 등을 방문해 캠프기간 동안 배운 중국어로 직접 물건을 사고, 음식을 주문하며 친구들과 대화하는 경험을 가졌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우리시 교육청에서 마련한 중국어캠프는 동북아 허브도시 인천의 위상에 걸맞는 전국 제일의 중국어 교육기반을 자랑하는 것이라 더 뜻 깊다.

한편 우리시 경제자유구역청은 영종도에 500명 가량의 학생들이 숙박을 하며 체험할 수 있는 중국어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 중국어마을은 단순히 어학교육만 하는 곳이 아닌 중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복합문화거리 형태로 추진된다. 일년 내내 다양한 공연과 이벤트가 열려 언제나 생활속의 중국어를 체험할 수 있는 학습공간이 되는 것이다.

특히 우리시의 중국어마을 조성에는 중국 상무부 등 중국의 중앙정부와 주한 중국대사관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 이례적이다.

우리시에 중국어마을이 생기면 중국 교역에 기본이 되는 중국어를 손쉽게 배우고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 중국에 가지 않고도 중국어권 문화를 체험할 수 있어 사교육비 절감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OLD Chinatown

## 120년 동안 피어난 재스민향

인천에 중국인들이 거주하게 된 것은 1884년 '인천구화상지계장정(仁川口華商地界章程)'을 체결하면서부터이다. 현재의 중구 북성동 일대 구릉지 5,000평에 청국 조계(租界)를 설치하고 청국영사관이 문을 열며 그들의 자치지역을 형성해 나갔다. 조계는 우리나라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사법적으로도 치외법권을 누릴 수 있는 '나라 속의 나라'였다. <인천부사(府史)>에 의하면 이미 그때 중국인 5명이 옛 세관 뒤편에 집을 짓고 식료품 잡화류의 수입과 해산물류의 본국 수출에 종사하면서 살고 있었다. 그 동네의 이름은 양국의 친선을 도모한다는 의미에서 선린동(善隣洞)이라고 명했다. 사람들은 그냥 차이나타운을 청관(淸館)이라고 불렀다.

인천에 거주하는 중국인의 수는 한 때 1만 명에 이르렀을 정도로 번창했으나 6·25 전쟁과 1960년대 화교에 대한 각종 규제로 중국인들의 '엑소더스'가 이어졌다. 한동안 청관의 시계도 멈추었다. 퇴락한 부락으로 전락하며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던 중 1992년에 한국과 중국이 다시 외교관계를 맺으면서 북성동에 다시 재스민향이 피어나고 있다.☀

글·유동현 (본지 편집장) | 사진·김보섭



- 1 차이나타운을 배경으로 한 영화촬영때 중국인 복장을 한 엑스트라들 (1991년)
- 2 1920년 山東省 榮城 출생 화교 1세대 張積房 할아버지. 신성루를 운영하다 현재는 쉬고 있다. (1992년)
- 3 장례식 풍경(저승 갈 때 타고 가는 말) (1992년)
- 4 중산학교 앞에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는 노인들. (1992년)
- 5 1980년대의 차이나타운 모습. 해안천주교회, 태화원 앞
- 6 중산학교 운동장에서 농구 경기를 하고 있는 화교 학생들. (1992년)
- 7 전족 등 전통적 중국 여성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화교 1세대 馬唐氏 할머니. 무릎에 안고 있는 쌍둥이 증손자들은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다. (1993년)

### 박물관에서 청관을 만나다

김보섭은 '청관(淸館)' 작가이다. 그는 20년 전부터 북성동을 드나들었다. 처음 몇년간은 셔터를 누르기보다는 화교들과 친구되기가 먼저였다. 화교들이 마음을 열자 그들의 삶을 '밀착'해서 필름에 담았다. 그의 사진 속 화교들의 모습을 보면 가족처럼 편안하다. 김보섭은 그들과 함께 중국 고향길에 동행해서 그들의 '뿌리'를 담아오기까지 했다. 청관과 화교들의 모습을 담은 그의 흑백사진을 시립박물관에서 볼 수 있다. 10월20일부터 11월19일까지 김보섭 사진 50여점이 전시된다. (문의\_시립박물관 440-6127)







아이들과 동네 한바퀴

# 21C 뉴실크로드 한중문화관

차이나타운의 한중문화관은 이 땅에 정착한 중국인들의 4세대에 걸친 세월이 녹아 있는 공간이다. 직접 중국에 가지 않고도 중국의 알찬 문화를 접할 수 있고 중국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꾸며놓았다. 김민경(연성초 6년), 손정화(청량초 6년), 김범진(연성초 5년), 신우철(청량초 5년), 김정호(연성초 5년), 김민서(연성초 3년) 어린이가 부푼 마음으로 한중문화관에서 시간여행을 떠났다.

글 • 한정민(전 더클래스 기자) | 사진 • 김성환 (자유사진가)

## 중국 각지에서 온 물품들로 '가득'

차이나타운에서 한중문화관을 찾는 일은 아주 쉬웠다. 울긋불긋한 비단옷을 입은 왕서방이 호탕하게 웃으며 걸어 나올 것 같은 지상5층, 지하1층의 범상치 않은 중국식 건물이 도심에 떡 하니 버티고 서 있었으니까. 마치 중국 땅 어느 곳에 온 것 같다.

붉은 기둥이 인상적인 한중문화관 안으로 들어가자 일행에게 다가온 이는 한중문화관 최중용 관장. 직접 중국여행의 '가이더' 역할을 맡아 주신단다.

1층엔 휴게실 외에 기획전시실과 정보검색실이 자리하고 있다. 기획전시실은 현재 개인이 전세계에서 수집한 별난 물건들을 체험하는 공간 '재미난 박물관'을 준비 중이다. 정보검색실은 중국에 대한 온갖 궁금증을 풀어준다.

최 관장의 안내에 따라 먼저 3층 우호도시 홍보관으로 올



라갔다. 우호도시 홍보관 중앙홀에는 중국의 화폐인 '금원보'가 번쩍번쩍 빛을 내며 자태를 뽐내고 있다.

“우와~ 꼭 왕관 같아요.” “진짜 멋져요.”

여섯 친구들의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입도 덩달아 동그랗게 벌어진다. 더불어 곧 보게 될 중국 우호교류도시에서 보내온 진기한 물품들에 대한 기대도 더욱 부풀어 오른다.

천진 등 중국의 8개 우호교류도시에서 무료로 기증했다는 물품들은 다채롭다. 한중 수교 이전부터 왕복했던 배의



모습, 선사시대 유물, 섬세한 유리공예품, 대리석을 깎아 만든 예술품, 종이공예품 등 지역마다의 특색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최 관장은 교류도시와의 협의를 통해 전시품을 수시로 교체, 관광객들의 지속적인 방문을 유도하고 있다고 귀띔한다.

한편에는 유명한 중국차를 맛 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 있다. 향기가 폴폴 피어나는 우롱차를 마셔본다. 약간 찜그리는 듯하다가 미소 짓는 아이들.

시음시간이 끝나자 중국 의상이 기다리고 있다. 펄떡의 <대지>에 나오는 '왕룡'도 결혼할 때 이런 의상을 입었을까? 아이들은 중국전통의상을 저마다 걸쳐본다. 우리 한복에 비해서는 어딘지 모르게 어색하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하지만 이런 기회를 놓칠 수는 없으니까.

## 한국과 중국의 문화는 어떻게 다를까?

2층은 한국과 중국의 문화를 동시에 체험하고 서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공간이다. 한국관과 중국관으로 나뉘어 있어 닮은 듯 하지만 닮지 않은, 다른 듯 하지만 다르지도 않은 양국의 사회, 경제, 문화를 비교해볼 수 있다.

13억 인구에 소수민족이 55개에 달하는 중국은 요리의 천국이다. 5,000년 세월동안 끓이고, 삶고, 튀기고, 굽는 등 조리법만 해도 40여 가지가 넘게 발달했다니... 상상이 안 될 정도다. 북경, 상해, 광둥, 사천의 요리 모형을 보던 정호가 “마파두부 맛있겠다”고 중얼거리며 입맛을 다신다.

중국의 문화유산, 전통 명절과 가정생활 등을 시간가는 줄 모르고 엿보던 친구들의 발걸음이 TV 영상모니터 앞에서 멈춘다. 중국을 테마로 그들의 사회, 문화, 경제에 관한 이야기가 생동감 있게 흘러나온다.

우리나라 전통공예와 렌티큘러를 이용한 인천의 발전상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영상물도 멋지다. 영상물에 집중하다보니 한중 교류사의 중심엔 언제나 인천이 있었다는 사실이 새삼 자랑스럽다.



2층에 마련되어 있는 투자상담실도 그런 한중 교류의 창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중국에 대한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우리나라에 오는 중국 경제인들이 국내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는 자리다.

4층에선 200석 규모의 공연장이 있어 중국의 오페라인 경극, 기예, 민속공연과 한국의 부채춤, 연극, 난타, 국악 등 볼거리가 제공되고 있다. 특별한 공연이 없을 때는 양국의 영화도 감상할 수 있단다.

앞으로 도서열람코너를 마련할 계획도 갖고 있다니 시민들이 방문해 역사공부도 하고 영화, 공연도 즐기고 독서까지 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이다.

중국인들이 손수 만든 인형을 다시 보러 오겠다는 범진이, 화려하게 빛나는 중국화페가 인상적이었다는 민서와 정호, 실크로 만든 책에 반한 민경이, 유리공예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정화, 그리고 도자기의 아름다움에 취한 우철이... 우리 친구들은 역사 지식을 머릿속에만 채긴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마음으로 체험한 모습이었다. ☀

**개관시간** 평일 9:00~19:00/ 토·일요일 10:00~19:00

(18:00시까지 입장 원로) 야간공연시 21:00 (연장공연시 22:00)

**휴관일** 매주 월요일/ 신년연휴, 설 연휴, 추석연휴, 임시공휴일,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 문의 760-7860~5







인천음식 요리조리 | 북성동 원조 자장면

# 하루 700만 그릇

## ‘꿀꺽’

글·김미희 (본지 편집위원) | 사진·김정식 (자유사진가)

### Made in 북성동

전국의 총 중국음식점 2만4천여개소, 하루 소비되는 자장면 총량 평균 700만 그릇,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가장 인기있는 외식 메뉴 1위. 자장면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민음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한국인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자장면의 국적이 과연 어디일까? 중국식 요리법과 재료에, 서양의 캐러멜을 넣은 소스, 일본의 단무지와, 한국의 김치가 함께 나오는 걸 보면 그 음식의 국적은 더욱 모호해진다. 중국요리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정작 중국 본토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전화 한 통화면 전국 어디서든 20여 분만에 배달되는 흔하디흔한 그 음식의 국적은 바로 인천 북성동 차이나타운.

1883년 개항이후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산둥지방에서 건너온 중국인 쿨리(苦力-하급노동자)들과 부두근로자들의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값싸고 손쉬운 간이 음식으로 자장면

이 만들어졌다. 중국식 된장인 춘장을 대량으로 볶아 국수에 얹어 비벼먹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자장면의 원조다. 자장면 한 그릇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3분이란니, 말하자면 지금의 패스트푸드인 셈이다.

당시 ‘공화춘’에서 집단 급식용으로 처음 자장면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원조설도 있지만 자장면이라고 칭하는 음식이 처음 판매되었을 뿐 아직 확실하게 밝혀진 자료는 없다. 그렇지만 북성동 차이나타운 일대에서 자장면이 처음 개발됐다는 사실에는 학자들 대부분 이견이 없다. 1905년 공화춘이 개업했다는 사실로 그 해를 자장면 탄생연도로 삼고 있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자장면 축제가 열리고 있으며 올해는 10월 14일에 개최된다. 한편 당시의 건축양식을 잘 보여주고 있는 공화춘은 최근 근대문화재로 지정됐으며 이곳에 자장면박물관을 만들기로 했다.

### 3대째 춘장 볶아온 태림봉



현재 차이나타운에는 25개의 중국 음식점들이 모여 있는데 그 중 두 세 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화교들이 운영하고 있다. 120년째 같은 자리에서 터를 잡아온 태림봉(763-1688) 범연광(47)사장 역시 자장면을 제일 먼저 개발한 세대의 후예다. 지난해 자장면 탄생 100주년을 맞아 ‘자장면이 맛있는 집’으로 선정된 태림봉은 하루에 100인분, 주말에는 300인분이상 춘장을 볶아내고 있으며 주말에 예약 없이 온다면 춘장 볶는 냄비만 맡고 돌아가야 한다. 범사장은 태림봉을 비롯해 집집마다 2~3대째 이어온 나름의 요리비법이 있고 테이블 회전률이 빨라 음식의 재료가 신선하다는 것을 차이나타운의 장점으로 꼽는다. 무엇보다 서민들을 위해 처음 자장면을 개발했던 선대들의 정신을 이어 정직하게 만들고 있단다.

### 된장녀 아닌 춘장녀 되기

일일 요리사 조용인(40)주부는 과거에 방송 관련 일을 한 탓인지 노련한 질문들로 차이나타운 원조자장면의 비밀을

캐려고 애쓴다.

“춘장 볶을 때 혹시 돼지기름이 사용되나요?...수타면을 뽑을 때 면끼리 왜 안 붙나요?...자장면 먹을 때 물이 많이 생기는 사람은 건강이 나쁜 건가요?” 기다렸다는 듯 질문이 봇물처럼 터지기 시작한다.

“저희는 식물성기름만 사용해요. 수타면에 소다가루를 조금 넣으면 서로 달라붙지 않죠. 그리고 면발을 이로 끊을 때 침 속의 아밀라아제라는 효소가 녹말과 섞여 물이 생기는 건데요, 건강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돌아오는 대답도 방송용 멘트처럼 명쾌하다.

춘장 볶기와 수타를 배우는 동안 ‘요리가 아닌 묘기를 보는 듯 신기하다’며 감탄사를 연발하는 조씨는 중국요리를 제대로 배우려면 팔뚝 힘을 길러야겠단다.

요리배우기가 끝나자 조씨

는 자장면을 제일 좋아한다는 아이가 눈에 밝혀 이번 주말 외식은 꼭 차이나타운에서 할 계획이다. ☀



### 짬깨? 짜장? 자장?

중국음식점을 갈 때 흔히 ‘짬깨 먹으러가자’라고 하는데 이때 짬깨는 ‘주인’을 뜻하는 북방계 중국어 장꾸이더(掌櫃的)에서 비롯된 말이다. 한자를 풀면 돈상자(櫃)를 맡고(掌)있는 사람(的)라는 뜻이 되어 주인을 의미한다. 때문에 짬깨라고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다. ‘볶은 장’을 의미하는 자장(炸醬)의 중국 발음이 [zhajiang]이라서 자장이라는 발음과 가장 유사하고 된소리화 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자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자장면이 표준어이지만 아직도 구어에서는 짜장으로 발음하는 경우가 많다. 자장보다는 짜장이 훨씬 식욕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옛날자장** :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장면으로 보통 양파, 양배추, 감자 등을 큼직하게 썰어 넣고 물과 전분을 넣어 춘장의 맛을 연하게 만든다.

**간 자 장** : 춘장에 물과 전분을 넣지 않고 그냥 기름에 볶으며 보통 자장보다 조금 더 기름지고 담백하며 자장과 면이 따로 나온다.

**삼선자장** : 새우, 오징어, 해삼 등 3가지 해산물 재료가 들어가는 고급 자장면으로 해물자장이라고도 한다.

**유슬자장** : 채소와 각종 재료를 면발과 같이 길쭉길쭉하게 썰어 넣어 만든 자장으로 납작한 접시에 나오는 것이 특징이다.

**유니자장** : 중국집마다 유니 또는 유모자장이란 이름으로 불리는 자장으로 각 재료들을 잘게 다져 넣어 부드러운 맛을 낸다.

**사천자장** : 중국 사천식 요리법으로 춘장이 아니라 볶은 고추와 함께 발효시킨 두반장으로 맛을 내기 때문에 볶은 색을 띠고 매콤하다.

**기타자장** : 최근 북성동 차이나타운에서는 웰빙 또는 퓨전 형태의 자장면을 개발하고 있는데 고구마자장면, 시금치를 갈아 면을 뽑은 녹색자장면, 콩, 표고, 버섯, 두부, 참쌀 등 모든 재료를 식물성으로 만들어 넣은 채식자장면 등을 선보이고 있다.





# 막上막下

## 이 달의 공연

### 인천댄스비엔날레 인 다 비

인다비는 '인천댄스비엔날레'의 인천(Incheon), 춤(Dance), 비 엔 날 레(Biennale)의 합성어로 지난 2004년에 기획된 격



년제 국제무용제이다. 푸른 바다와 춤의 열정, 그리고 흥겨운 축제 속에 인천의 품격을 업그레이드 시킬 무용축제로 이번 무대에는 스페인의 조르디 코르테스, 미국의 머리아어 말로니

그리고 김용철, 최소빈 등 정상급 무용수들이 선보인다.

**일시** \_ 10월27일(금) 오후7시30분, 28일(토) 오후6시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티켓** \_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문의** \_ 김현숙현대무용단(760-8862, 017-342-1162)

### 서울색소폰과리렛 기일의 유혹



색소폰이 이 가을을 유혹한다. 서울색소폰리렛은 서울대 음대와 한 국예술종합학교를 졸업한 후 프랑스 음악원에 서 실내악과 솔로 과정을 이수, 파리 레오폴드 벨란 콩쿠르 등 국제콩

쿠르에서 입상한 경력을 지닌 네 명의 젊은 음악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독일과 프랑스에서많은 관객들에게 호평을 받은 바 있으며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음반을 녹음하기도 했다.

**일시** \_ 10월 21일(토) 오후4시

**장소** \_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씨리재홀

**티켓** \_ R석 20,000원 S석 15,000원 A석 10,000원

**문의** \_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760-3453~6)

www.iecs.go.kr

### i-신포니에타 제4회 정기연주회 오감만족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는 가을밤, <오감만족>이란 주제로 i-신포니에타가 해설과 영상을 곁들인 클래식 선율을 청량한 기술에서 들려준다. 우리에게 친숙한 영화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영화평론가 오동진의 영화이야기도 듣고 와인과 차를 마시며 즐기는 느낌있는 이색 연주회로 꾸며진다.

**일시** \_ 10월14일(토) 오후7시

**장소** \_ 인천광역시립박물관(우현마당)

**티켓** \_ 전석 초대

**문의** \_ i-신포니에타 (834-1055)

### 2006 인천 아시아 타악페스티벌



전문타악예술단체 풍물패 진커미당은 '아시아를 두드리는 플라미 인천'이란 주제로 인천 아시아 타악페스티벌을 연다. 풍물길놀이를 비롯해 전통타악과 현대 창작타악이 서로 겨루는 전국타악경연, 인천지역 풍물단체들이 서로의 끼를 선보이는 타악 프린지축제, 시민참여 타악제함마당, 그리고 한·중·일 타악 공연단의 아시아 타 & 민속 콘서트 등의 무대로 꾸며진다.

**일시** \_ 10월22일(일) 오전10시~오후9시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티켓** \_ 초대(무료)

**문의** \_ 풍물패진커미당 (501-1454)

## 10월2

월	화	수	목	금	토	일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 비디오 전시회 의상을 넘어서

인천 알리앙스 프랑세즈는 비디오 매체와 접촉한 패션 영상전시회 <의상을 넘어서>를 마련한다. 영상을 통해 단지 의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18인 18색의 비디오로 보는 모드'라는 타이틀처럼 비

디오라는 매체를 통해 디자이너들의 색다른 예술세계를 보여준다.

**일시** 10월10일(화)~14일(토) / **장소** 청소년미디어센터 (880-4897) / **티켓** 무료

**문의** 인천 알리앙스 프랑세즈 (860-8034)

월	화	수	목	금	토	일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인천 알리앙스 프랑세즈는 비디오 매체와 접촉한 패션 영상전시회 <의상을 넘어서>를 마련한다. 영상을 통해 단지 의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18인 18색의 비디오로 보는 모드'라는 타이틀처럼 비

**일시** 10월10일(화)~14일(토) / **장소** 청소년미디어센터 (880-4897) / **티켓** 무료

**문의** 인천 알리앙스 프랑세즈 (860-8034)

## 이달의 展

### 인천시조대추천작가전

초대 추천작가 170여명이 참여하는 인천시조대추천작가전이 10월6일부터 12일 까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에서 열린다.

이 전시회에는 한국화, 서양화, 서예, 문인화, 조각, 공예, 디자인 등 다양한 장르의 작가들이 20년에서 반세기에 이르는 경력과 각종 수상을 한 경력을 토대로 자기 철학과 의식이 뚜렷한 중후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인천도자기축제** (430-1157)  
9월25일~10월 9일  
신세계갤러리  
**제5회ITC2006전시회** (440-3433)  
10월11일~5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전시실  
**인천시조대추천작가전** (011-262-6279)  
10월6일~12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전시실  
**2006울스쿠라사진영상전시회** (890-7270)  
10월6일~12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중앙·소전시실  
**인천공예인협회회원전** (579-0733)  
10월6일~12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미추홀전시실  
**장 진 개인전** (430-1157)  
10월10일~10월16일  
신세계갤러리  
**2006 인천국제다자언제어** (440-2823)  
10월19일~26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전시실  
**영화 속의 인천전** (430-1157)  
10월17일~10월22일  
신세계갤러리

**2006인천건축문화예술대전**  
10월13일~19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전시실  
**인천미술원로작가초대전**  
10월10일~16일  
중구 한중문화회관전시실  
**인천교복50년** 변천사 (763-8134)  
10월26일~29일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전시실  
**감진희 개인전** (430-1157)  
10월26일~31일  
신세계갤러리  
**2006인천국제유니버설다자언전**  
10월27일~31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전시실  
**오경란 개인전** (438-6617)  
10월27일~31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중앙전시실  
**제19회양성식개인전** (514-5330)  
10월27일~31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전시실  
**제1회오세연도예전** (888-9047)  
10월27일~31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미추홀전시실

인천시조대추천작가전이 10월6일부터 12일 까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에서 열린다.

이 전시회에는 한국화, 서양화, 서예, 문인화, 조각, 공예, 디자인 등 다양한 장르의 작가들이 20년에서 반세기에 이르는 경력과 각종 수상을 한 경력을 토대로 자기 철학과 의식이 뚜렷한 중후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인천도자기축제** (430-1157)  
9월25일~10월 9일  
신세계갤러리  
**제5회ITC2006전시회** (440-3433)  
10월11일~5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전시실  
**인천시조대추천작가전** (011-262-6279)  
10월6일~12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전시실  
**2006울스쿠라사진영상전시회** (890-7270)  
10월6일~12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중앙·소전시실  
**인천공예인협회회원전** (579-0733)  
10월6일~12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미추홀전시실  
**장 진 개인전** (430-1157)  
10월10일~10월16일  
신세계갤러리  
**2006 인천국제다자언제어** (440-2823)  
10월19일~26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전시실  
**영화 속의 인천전** (430-1157)  
10월17일~10월22일  
신세계갤러리

**장소** \_ 인천광역시립박물관(우현마당)

**티켓** \_ 전석 초대

**문의** \_ i-신포니에타 (834-1055)

인천댄스비엔날레 인 다 비  
인다비는 '인천댄스비엔날레'의 인천(Incheon), 춤(Dance), 비 엔 날 레(Biennale)의 합성어로 지난 2004년에 기획된 격

년제 국제무용제이다. 푸른 바다와 춤의 열정, 그리고 흥겨운 축제 속에 인천의 품격을 업그레이드 시킬 무용축제로 이번 무대에는 스페인의 조르디 코르테스, 미국의 머리아어 말로니

그리고 김용철, 최소빈 등 정상급 무용수들이 선보인다.

**일시** \_ 10월27일(금) 오후7시30분, 28일(토) 오후6시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티켓** \_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문의** \_ 김현숙현대무용단(760-8862, 017-342-1162)

## 이달의 展

### 인천시조대추천작가전

초대 추천작가 170여명이 참여하는 인천시조대추천작가전이 10월6일부터 12일 까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에서 열린다.

이 전시회에는 한국화, 서양화, 서예, 문인화, 조각, 공예, 디자인 등 다양한 장르의 작가들이 20년에서 반세기에 이르는 경력과 각종 수상을 한 경력을 토대로 자기 철학과 의식이 뚜렷한 중후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인천도자기축제** (430-1157)  
9월25일~10월 9일  
신세계갤러리  
**제5회ITC2006전시회** (440-3433)  
10월11일~5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전시실  
**인천시조대추천작가전** (011-262-6279)  
10월6일~12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전시실  
**2006울스쿠라사진영상전시회** (890-7270)  
10월6일~12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중앙·소전시실  
**인천공예인협회회원전** (579-0733)  
10월6일~12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미추홀전시실  
**장 진 개인전** (430-1157)  
10월10일~10월16일  
신세계갤러리  
**2006 인천국제다자언제어** (440-2823)  
10월19일~26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전시실  
**영화 속의 인천전** (430-1157)  
10월17일~10월22일  
신세계갤러리

**2006인천건축문화예술대전**  
10월13일~19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전시실  
**인천미술원로작가초대전**  
10월10일~16일  
중구 한중문화회관전시실  
**인천교복50년** 변천사 (763-8134)  
10월26일~29일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전시실  
**감진희 개인전** (430-1157)  
10월26일~31일  
신세계갤러리  
**2006인천국제유니버설다자언전**  
10월27일~31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전시실  
**오경란 개인전** (438-6617)  
10월27일~31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중앙전시실  
**제19회양성식개인전** (514-5330)  
10월27일~31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전시실  
**제1회오세연도예전** (888-9047)  
10월27일~31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미추홀전시실

## 이달의 展

### 인천시조대추천작가전

초대 추천작가 170여명이 참여하는 인천시조대추천작가전이 10월6일부터 12일 까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에서 열린다.

이 전시회에는 한국화, 서양화, 서예, 문인화, 조각, 공예, 디자인 등 다양한 장르의 작가들이 20년에서 반세기에 이르는 경력과 각종 수상을 한 경력을 토대로 자기 철학과 의식이 뚜렷한 중후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인천도자기축제** (430-1157)  
9월25일~10월 9일  
신세계갤러리  
**제5회ITC2006전시회** (440-3433)  
10월11일~5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전시실  
**인천시조대추천작가전** (011-262-6279)  
10월6일~12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전시실  
**2006울스쿠라사진영상전시회** (890-7270)  
10월6일~12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중앙·소전시실  
**인천공예인협회회원전** (579-0733)  
10월6일~12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미추홀전시실  
**장 진 개인전** (430-1157)  
10월10일~10월16일  
신세계갤러리  
**2006 인천국제다자언제어** (440-2823)  
10월19일~26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전시실  
**영화 속의 인천전** (430-1157)  
10월17일~10월22일  
신세계갤러리

**2006인천건축문화예술대전**  
10월13일~19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전시실  
**인천미술원로작가초대전**  
10월10일~16일  
중구 한중문화회관전시실  
**인천교복50년** 변천사 (763-8134)  
10월26일~29일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전시실  
**감진희 개인전** (430-1157)  
10월26일~31일  
신세계갤러리  
**2006인천국제유니버설다자언전**  
10월27일~31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전시실  
**오경란 개인전** (438-6617)  
10월27일~31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중앙전시실  
**제19회양성식개인전** (514-5330)  
10월27일~31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전시실  
**제1회오세연도예전** (888-9047)  
10월27일~31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미추홀전시실

## 이달의 展

### 인천시조대추천작가전

초대 추천작가 170여명이 참여하는 인천시조대추천작가전이 10월6일부터 12일 까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에서 열린다.

이 전시회에는 한국화, 서양화, 서예, 문인화, 조각, 공예, 디자인 등 다양한 장르의 작가들이 20년에서 반세기에 이르는 경력과 각종 수상을 한 경력을 토대로 자기 철학과 의식이 뚜렷한 중후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인천도자기축제** (430-1157)  
9월25일~10월 9일  
신세계갤러리  
**제5회ITC2006전시회** (440-3433)  
10월11일~5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전시실  
**인천시조대추천작가전** (011-262-6279)  
10월6일~12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전시실  
**2006울스쿠라사진영상전시회** (890-7270)  
10월6일~12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중앙·소전시실  
**인천공예인협회회원전** (579-0733)  
10월6일~12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미추홀전시실  
**장 진 개인전** (430-1157)  
10월10일~10월16일  
신세계갤러리  
**2006 인천국제다자언제어** (440-2823)  
10월19일~26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전시실  
**영화 속의 인천전** (430-1157)  
10월17일~10월22일  
신세계갤러리

**2006인천건축문화예술대전**  
10월13일~19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전시실  
**인천미술원로작가초대전**  
10월10일~16일  
중구 한중문화회관전시실  
**인천교복50년** 변천사 (763-8134)  
10월26일~29일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전시실  
**감진희 개인전** (430-1157)  
10월26일~31일  
신세계갤러리  
**2006인천국제유니버설다자언전**  
10월27일~31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전시실  
**오경란 개인전** (438-6617)  
10월27일~31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중앙전시실  
**제19회양성식개인전** (514-5330)  
10월27일~31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전시실  
**제1회오세연도예전** (888-9047)  
10월27일~31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미추홀전시실

## 이달의 展

### 인천시조대추천작가전

초대 추천작가 170여명이 참여하는 인천시조대추천작가전이 10월6일부터 12일 까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에서 열린다.

이 전시회에는 한국화, 서양화, 서예, 문인화, 조각, 공예, 디자인 등 다양한 장르의 작가들이 20년에서 반세기에 이르는 경력과 각종 수상을 한 경력을 토대로 자기 철학과 의식이 뚜렷한 중후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인천도자기축제** (430-1157)  
9월25일~10월 9일  
신세계갤러리  
**제5회ITC2006전시회** (440-3433)  
10월11일~5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전시실  
**인천시조대추천작가전** (011-262-6279)  
10월6일~12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전시실  
**2006울스쿠라사진영상전시회** (890-7270)  
10월6일~12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중앙·소전시실  
**인천공예인협회회원전** (579-0733)  
10월6일~12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미추홀전시실  
**장 진 개인전** (430-1157)  
10월10일~10월16일  
신세계갤러리  
**2006 인천국제다자언제어** (440-2823)  
10월19일~26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전시실  
**영화 속의 인천전** (430-1157)  
10월17일~10월22일  
신세계갤러리

**2006인천건축문화예술대전**  
10월13일~19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전시실  
**인천미술원로작가초대전**  
10월10일~16일  
중구 한중문화회관전시실  
**인천교복50년** 변천사 (763-8134)  
10월26일~29일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전시실  
**감진희 개인전** (430-1157)  
10월26일~31일  
신세계갤러리  
**2006인천국제유니버설다자언전**  
10월27일~31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전시실  
**오경란 개인전** (438-6617)  
10월27일~31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중앙전시실  
**제19회양성식개인전** (514-5330)  
10월27일~31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전시실  
**제1회오세연도예전** (888-9047)  
10월27일~31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미추홀전시실

## 이달의 展

### 인천시조대추천작가전

초대 추천작가 170여명이 참여하는 인천시조대추천작가전이 10월6일부터 12일 까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에서 열린다.

이 전시회에는 한국화, 서양화, 서예, 문인화, 조각, 공예, 디자인 등 다양한 장르의 작가들이 20년에서 반세기에 이르는 경력과 각종 수상을 한 경력을 토대로 자기 철학과 의식이 뚜렷한 중후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인천도자기축제** (430-1157)  
9월25일~10월 9일  
신세계갤러리  
**제5회ITC2006전시회** (440-3433)  
10월11일~5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전시실  
**인천시조대추천작가전** (011-262-6279)  
10월6일~12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전시실  
**2006울스쿠라사진영상전시회** (890-7270)  
10월6일~12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중앙·소전시실  
**인천공예인협회회원전** (579-0733)  
10월6일~12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미추홀전시실  
**장 진 개인전** (430-1157)  
10월10일~10월16일  
신세계갤러리  
**2006 인천국제다자언제어** (440-2823)  
10월19일~26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전시실  
**영화 속의 인천전** (430-1157)  
10월17일~10월22일  
신세계갤러리

**2006인천건축문화예술대전**  
10월13일~19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전시실  
**인천미술원로작가초대전**  
10월10일~16일  
중구 한중문화회관전시실  
**인천교복50년** 변천사 (763-8134)  
10월26일~29일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전시실  
**감진희 개인전** (430-1157)  
10월26일~31일  
신세계갤러리  
**2006인천국제유니버설다자언전**  
10월27일~31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전시실  
**오경란 개인전** (438-6617)  
10월27일~31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중앙전시실  
**제19회양성식개인전** (514-5330)  
10월27일~31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전시실  
**제1회오세연도예전** (888-9047)  
10월27일~31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미추홀전시실

## 이달의 展

### 인천시조대추천작가전

초대 추천작가 170여명이 참여하는 인천시조대추천작가전이 10월6일부터 12일 까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에서 열린다.

이 전시회에는 한국화, 서양화, 서예, 문인화, 조각, 공예, 디자인 등 다양한 장르의 작가들이 20년에서 반세기에 이르는 경력과 각종 수상을 한 경력을 토대로 자기 철학과 의식이 뚜렷한 중후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인천도자기축제** (430-1157)  
9월25일~10월 9일  
신세계갤러리  
**제5회ITC2006전시회** (440-3433)  
10월11일~5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전시실  
**인천시조대추천작가전** (011-262-6279)  
10월6일~12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전시실  
**2006울스쿠라사진영상전시회** (890-7270)  
10월6일~12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중앙·소전시실  
**인천공예인협회회원전** (579-0733)  
10월6일~12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미추홀전시실  
**장 진 개인전** (430-1157)  
10월10일~10월16일  
신세계갤러리  
**2006 인천국제다자언제어** (440-2823)  
10월19일~26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전시실  
**영화 속의 인천전** (430-1157)  
10월17일~10월22일  
신세계갤러리

**2006인천건축문화예술대전**  
10월13일~19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전시실  
**인천미술원로작가초대전**  
10월10일~16일  
중구 한중문화회관전시실  
**인천교복50년** 변천사 (763-8134)  
10월26일~29일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전시실  
**감진희 개인전** (430-1157)  
10월26일~31일  
신세계갤러리  
**2006인천국제유니버설다자언전**  
10월27일~31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전시실  
**오경란 개인전** (438-6617)  
10월27일~31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중앙전시실  
**제19회양성식개인전** (514-5330)  
10월27일~31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전시실  
**제1회오세연도예전** (888-9047)  
10월27일~31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미추홀전시실

## 이달의 展

### 인천시조대추천작가전

초대 추천작가 170여명이 참여하는 인천시조대추천작가전이 10월6일부터 12일 까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에서 열린다.

이 전시회에는 한국화, 서양화, 서예, 문인화, 조각, 공예, 디자인 등 다양한 장르의 작가들이 20년에서 반세기에 이르는 경력과 각종 수상을 한 경력을 토대로 자기 철학과 의식이 뚜렷한 중후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인천도자기축제** (430-1157)  
9월25일~10월 9일  
신세계갤러리  
**제5회ITC2006전시회** (440-3433)  
10월11일~5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전시실  
**인천시조대추천작가전** (011-262-6279)  
10월6일~12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전시실  
**2006울스쿠라사진영상전시회** (890-7270)  
10월6일~12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중앙·소전시실  
**인천공예인협회회원전** (579-0733)  
10월6일~12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미추홀전시실  
**장 진 개인전** (430-1157)  
10월10일~10월16일  
신세계갤러리  
**2006 인천국제다자언제어** (440-2823)  
10월19일~26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전시실  
**영화 속의 인천전** (430-1157)  
10월17일~10월22일  
신세계갤러리

**2006인천건축문화예술대전**  
10월13일~19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전시실  
**인천미술원로작가초대전**  
10월10일~16일  
중구 한중문화회관전시실  
**인천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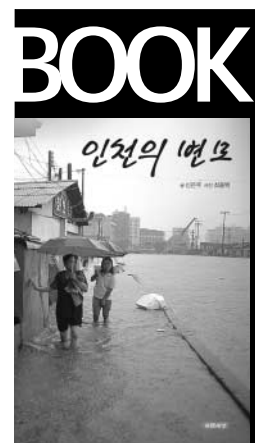
# 뮤지컬 **마리아 마리아**

성경을 바탕으로 작가적 상상을 통해 재창조된 뮤지컬 <마리아 마리아>는 세기를 뛰어넘는 영원한 이슈 '막달라 마리아'의 삶을 재조명한 작품이다. 예수를 만나 밑바닥 생활을 청산하고 로마 행을 꿈꾸는 창녀 마리아의 굴곡진 삶을 드라마틱하게 표현한 뮤지컬로,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가 '유다' 전 이라면 <마리아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 전 으로 비유되기도 한다.

31개의 주옥같은 뮤지컬 노래 중 '나의 남자'와 '당신이었군요'는 세계적 수준의 곡으로 평가 받고 있다. 뮤지컬 <마리아 마리아>는 2004 한국뮤지컬대상에서 최우수작품상, 여우주연상, 작사·극본상, 음악상 등 4개 부문을 석권한 작품이다.

마리아역에는 2004년 제10회 한국뮤지컬대상 여우주연상과 2004년 제1회 아름다운 연극인상 최고 배우상을 받은 강효성이, 예수역에는 뮤지컬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이프>, <마녀사냥> 등에 출연한 박상우가 맡는다.

**일시** 10월 27일(금) 오후7시30분, 28일(토) 오후 3시, 7시  
**장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R석 2만원 / S석 1만원  
**예매** 엔티켓 1588-2341 / 인터파크 1544-1555  
**문의** 420-2020



## 인천의 변모

인천 지역의 변모를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면 우리는 인천의 현재 모습을 알지 못한다.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현재에는 뿌리도 없고 정체성도 흔들린다. '인천의 변모' 사진집은 인천의 구석구석을 발로 뚫은 사진작가 최용백의 시선과 수필가이며 현재 고교 국어교사로 재직 중인 신은주의 글이 어우러져 다큐멘터리의 진수를 보여 준다. 지역의 변화 과정을 꾸준히 담아 온 사진집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크다. 청소년들은 자신의 어린 시절, 부모세대가 살았던 인천의 모습이 더 이상 남아 있지 않는 현실에서 지역에 대한 정체성과 애정은 흔들리게 된다. 인천의 변화가 담긴 사진을 보면서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사라진 것에 아쉬움도 느끼게 될 것이다. 다큐멘터리 기록 사진의 힘은 깊은 울림으로 다가 와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뿐 만 아니라 나 자신의 변화도 성찰하게 한다.

전면칼라 양장 208페이지/푸른세상/가격30,000원  
 글 신은주 / 사진 최용백 (문의 011-264-7482)

## 인천시립예술단 시월 무대

### 시립합창단

#### 산베다 메일싱어즈와 어우러진 무대 '왓 투와리와리'

시립합창단은 제103회 정기공연을 필리핀의 산베다 메일싱어즈와 조인트로 가요와 팝이 어우러진 멋진 가을무대를 마련한다. 산베다 메일싱어즈는 필리핀 합창 음악을 남성 합창 버전으로 전세계에 알리는 필리핀 대표 최고의 남성체임버합창단이다. 지난 4년 동안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에스토니아, 대만 등 세계 연주투어를 7번이나 시도한 이력을 갖고 있는 이들의 레퍼토리는 클래식에서 아방가르드까지, 각 국가의 민요에서 팝송, 오페라, 재즈까지 전 영역을 소화해 낸다.

**일시** 10월18일(수), 19일(목) 오후7시30분 | **장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R석 10000원, S석 7000원 | **문의** 인천시립합창단(420-2784)



### 시립무용단

#### # 스테이지 I 무용을 위한 프로젝트 II <문학속으로>

어느 분야에서나 상상력과 창의력이 강조되고 있는 요즘, 시립무용단은 '2006 가을 춤 여행'으로 <무용을 통한 교육 프로젝트II - 문학 속으로>를 준비했다. 단원들의 창작공연을 중심으로 꾸며지는 '가을 춤 여행'은 아름다운 시와 수필 그리고 무용이 함께 하는 가을여행이 될 것이다.

**일시** 10월12일(목), 13일(금) 오후7시30분  
**장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티켓** R석 10000원, S석 5000원  
**문의** 인천시립무용단(420-2788)



#### # 스테이지 II 인천을 빛낸 별들 <누리의 꿈을 꾸다>

인천을 빛낸 별들 <누리의 꿈을 꾸다>는 인천 출신과 인천 거주자들 중 2006년 한 해 동안 전국 규모의 각종 무용콩쿨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인천을 빛낸 미래의 춤꾼들이 그들의 뛰어난 기량을 마음껏 펼쳐 보이는 무대이다.

**일시** 10월 25일(수) 오후7시30분  
**장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티켓** R석 10000원, S석 5000원  
**문의** 인천시립무용단(420-2788)



### 시립교향악단

#### # 스테이지 I 제272회 정기연주회

**일시** 10월12일(목) 오후7시30분 | **장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R석 10000원, S석 7000원, A석 5000원  
**문의** 인천시립교향악단(420-2781)

#### # 스테이지 II 실내악연주회

**일시** 10월18일(수) 오후7시30분 | **장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티켓** 전석 5000원  
**문의** 인천시립교향악단(420-2781)





Festival! 가을 속으로

# 단풍보다 더 화려한 10월 축제

## 제물포예술제

인천예총에서는 매년 제물포예술제를 통해 지역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시민들에게 향토 예술을 선보이고 있다. 올해로 24회를 맞는 제물포 예술제는 9월30일부터 10월21일까지 주말을 중심으로 공연이 펼쳐진다.故이영유 작가 추모작품 '이몽마 정형외과(9월30일~10월2일)', 경음악 연주회(10월13일), 가을 팝스 콘서트(10월14일), 몸짓끼리의 대화(10월15일)가 공연되고 2014년 아시안게임 유치기원 비나리(10월21일)가 월미도 문화의 거리 무대에서 펼쳐진다.

**문의** 인천예총 873-5174  
www.artin.or.kr



## 국제클라운마임축제

올해로 11주년을 맞은 인천국제클라운마임축제는 인천의 대표적인 국제예술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우리시 문화예술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올해는 프랑스, 뉴질랜드, 스웨덴, 일본, 인도, 네덜란드, 호주, 룩셈부르크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마임 공연자와 스탭이 자국의 공연 예술과 문화를 보여준다. 마임 매니아는 물론 가족을 위한, 어린이를 위한 축제의 장으로 마임축제를 즐길 수 있다.

**기간** 10월11일(수)~15일(일)  
**장소** 학산소극장, 여성의 광장 공연장, 도화문화회관  
**문의** 인천 국제클라운마임 축제 추진위원회 772-7361

www.clownmime.com



## 인천소래포구축제

올해로 제6회를 맞는 인천소래포구축제가 남동구 소래포구 일원에서 열린다. '바다로, 포구로, 소래로'라는 주제로 서해안 풍어제, 망둥어 낚시대회, 700인분 어죽 시식회, 소래포구 아줌마 선발대회 등 각종 공연과 체험행사가 준비된다. 포구의 정취에 빠져보고 해산물 맛도 볼 수 있는 일석삼조의 축제다. 수산물도 평소보다 저렴하게 판매된다.

※본지 57쪽 행사일정표 참고

**기간** 10월 11일(수)~14일(토)  
**장소** 남동구 소래포구 일원  
**문의** 남동구청 453-2141~2  
www.soraefestival.com



## 인천도호부대제

제42회 인천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도호부대제가 열린다. 역대 부사(府使) 351인의 공덕을 기리고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안녕을 기원하며 특히 2014년 아시안게임의 성공 유치를 기원한다. 인천의 전통문화축제로 시민들과 함께하는 음복례행사를 비롯해 요들단과 마임공연, 퓨전 국악연주 등이 펼쳐진다. 올해는 영화 '왕의 남자'에서 줄타기 지도와 대역으로 출연한 줄타기 명인 권원태 씨의 줄타기를 볼 수 있다.

**시간** 10월14일(토) 10:00~15:00  
**장소** 인천도호부청사  
**문의** 인천예총 873-5174 www.artin.or.kr



## 월미관광특구 문화大축제

시민들에게 중구의 10월은 각종 축제를 알록달록 잘 포장한 종합선물세트 같은 달이다. 중구에서는 구민의 날을 기념해 월미관광특구 문화大축제를 연다. 월미도 문화의 거리에서 열리는 문화축제(9월30일~10월1일)를 비롯해 차이나타운의 자장면축제(10월14일), 연안부두축제(10월14일~15일), 신포 젊음의 거리 축제(10월14일~15일), 용동 큰우물제(10월21일) 등이 10월 주말을 모두 예약했다.

**문의** 중구청 760-7031



## 국화축제

가을 꽃향기로 인천을 가득 채울 국화축제가 시내 곳곳에서 열린다. 수도권매립지공사(560-3624)에서 마련한 국화축제는 10월20일~29일까지 청사앞마당과 생태연못 주변에서 열린다. 강화문예회관(933-8016)은 10월28일~31일 대강당에서 국화전시회를 연다. 또 인천대공원(440-6682) 꽃전시관에서는 10월12일~25일 국화전시회가 열린다.



## 강화도새우젓축제

축제라고해서 눈만 즐거우란 법은 없다. 우리나라 새우젓 생산의 3대 어장의 하나인 강화도 외포항에서 10월14일~16일 동안 새우젓 축제가 열린다. 새우젓 김치담그기, 새우젓 효 사랑잔치, 생선회뜨기, 새우젓 즉석경매, 강화갯벌장어 잡기대회, 낚시대회 등 체험행사와 새우젓가요제(접수~10월12일 마감)가 열린다.

**기간 및 장소**  
10월14일(토)~16일(월)  
강화군 내가면 외포리  
외포항 일원  
**문의**  
강화도 새우젓축제 추진위원회  
932-9337 jutgal.co.kr



## 서구랑랑축제

랑랑은 너랑 나랑 우리랑 함께 만드는 축제, 사랑과 낭만이 가득한 축제, 아리랑 랑랑 즐겁게 춤을 추자는 의미에서 시작됐다. 차 없는 자유공간에서 다양한 거리공연과 체험행사를 즐기며 지역주민은 물론 외국인과 시민들 모두가 하나가 되는 거리문화 축제다. 우리시 춤 동아리와 외국인 근로자 모임, 해외공연단이 참여한다. 서구 지역주민이 하나되고 인천시민이 하나되고 나아가 세계가 하나되는 축제다.

**기간** 10월15일(일)  
**장소** 서구 원적산길  
**문의** 서구축제위원회  
560-4347



## 월미국제음악제

국제도시를 지향하는 우리시에서는 매년 월미국제음악제가 열린다. 국내외 유명 음악단과 음악가를 초청해 순수음악을 비롯해 대중성 있는 음악 등 다양한 음악의 세계로 초대한다. 클래식, 팝, 재즈, 민속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각국의 음악가를 만날 수 있다. 시립교향악단의 클래식 향연과 유럽 프리마돈나 초청 아리아의 밤, 재즈 팝 콘서트와 일본 방악 앙상블, 크로스 오버 뮤직축제와 피아노 듀오 콘서트 등의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관람 신청을 받는다.

**기간**  
10월20일(금)~10월22일(일)  
19:30~22:00  
**장소** 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및 소공연장  
**문의** 시 문화예술과  
440-4020





## 굿인천 굿뉴스

### 사회복지 으뜸도시

우리시가 지난 3년 연속 '저소득층 중양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올해로 7회째 맞는 사회복지의 날 행사에서 우리시를 비롯해 시민, 단체 부문에서 국무총리 및 보건복지부장관상 등을 수상했다. 지자체로서 우리시는 3년째 '저소득층 자활사업 중앙평가 우수기관'으로 평가됐다. 또 전 인천광역시 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소속 故 간상복 씨와 재단법인 인천교구 천주교회유지재단 소속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이 사회복지 유공자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 등 사회복지 우수도시로 인정받았다.

문의 \_ 시 사회복지봉사과 440-2653

### 전국 최초 자원봉사센터 건립

우리시에 전국 최초로 자원봉사종합센터가 건립된다. 총 26만명에 달하는 우리시 자원봉사자들의 복지편의를 위해 부지 5천평에 지상3층, 지하2층 규모로 지어진다. 1층에는 자원봉사 홍보관과 갤러리, 자원봉사 명예의 전당, 동아리

방, 영·유아보육실이 들어서며 2층에는 영상회의실과 교육실습장, 3층에는 상설교육장과 체험봉사관 등이 마련된다. 지하에는 상설 알뜰장터와 수영장, 체력단련실, 골프연습장, 주차장 등을 계획하고 있다. 외부시설로는 호수공원과 테마전시장, 놀이마당, 노천극장 등 문화·체육시설이 꾸며진다. 우리시는 230억원을 들여 내년에 착공해 2010년 준공할 예정이다.

문의 \_ 시 사회복지봉사과 440-2670

### 도로가 '뽕' 뚫리고 '확' 넓어져요



우리시와 부천시를 잇는 도로 2곳이 개통된다. 우선 부평구 삼산 2택지 지구~

부천 중동대로(약대동) 사이를 잇는 길이 440m, 너비 30m의 왕복 6차선 도로가 10월초 개통예정이다. 다른 하나는 계양구 효성동~부천시 삼정동 경계 사이 길이 5000m, 너비 50~115m 도로가 11월중 생긴다. 그 중 계양구 작전동 봉화로 일부구간(2872m)은 이미 개통된 상태다.

한편 서창2지구 개발과 관련해 사업지에서 42번국도와 신천IC, 소래로를 연결하는 도로 4.4km가 신설되며 42번국도 대체 우회도로 1.9km도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되는 등 모두 4개구간의 6.3km가 신설 또는 확장된다. 이와 함께 가정개발지구 인근에는 사업지와 경명로를 연결하는 1.9km도로를 신설하고 서곶길 일부구간(1km)을 6차로에서 10차로로 확장하는 등 총 4.4km를 확충할 계획이다.

문의 \_ 시 도로과 440-3790

KT도 아시안게임 유치홍보 나선다  
KT수도권서본부(본부장 김덕겸)는



우리시 주요 현안사업에 협력하며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2014년 아시안게임 인천유치' 홍보물을 사업용 차량에 부착했다. 지난 8월 29일 KT인천지사서 차량 50대에 홍보래핑을 부착하고 차량 홍보단 발대식을 가졌다. 김덕겸 수도권 서부분장은 "인천시가 2014년 아시안 게임 개최지로 선정돼 지역 경제발전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최첨단 IT 서비스는 물론 각종 지원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_ KT수도권서본부 327-5136

### '인천삼산월드체육관'으로 결정



10월 14일 개관예정인 부평구 삼산동 체육관의 정식 이름이 '인천삼산월드체육관'으로 공식 결정됐다. 체육관 이름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체육관시설이 국제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해 결정됐다. 이 체육관은 삼산택지지구 5만52㎡(1만2140평)터에 740억원을 들여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연면적 4만3029㎡)로 외관은 비행기 모양을 형상화했다. 7천504석을 갖춘 실내주경기장

을 비롯해 598석의 보조경기장을 갖춘 국내 최대규모다. 체육관에서는 11월2일~11일 인천세계청소년배드민턴선수권대회가 열리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아시아여자농구선수권대회, 코리아오픈국제태권도대회, 아시아복싱선수권대회 등이 개최될 예정이다.

문의 \_ 시 설관리공단 삼산사업단 513-4819

### 호놀룰루서 국제미술교류전 열려



우리시와 자매·우호 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 호놀룰루에서 제4회 인천·하와이 국제 미술교류전이 열렸다. 하와이 한인 미술협회와 인천미술협회 주최로 호놀룰루 시청 코트야드 갤러리에서 열린 이번 미술전 개막식에는 무피 헤네만 호놀룰루 시장을 비롯해 김동연 부총영사와 서성갑 한인회 회장, 하와이 한인미술협회와 인천미술협회 회원들을 포함해 미술작가들이 참석했다. 헤네만 시장은 축하사에서 "인천과 하와이 미술작가들의 교류전을 통해 하와이와 인천의 우호증진은 물론 각종 교류 문화가 넓어지고 있다."며 앞으로 우리시와 협력을 통해 더 깊은 우호 관계를 만들어갈 것을 희망했다. 이번 미술전에는 하와이 작가들 포함해 총 90여 작품이 출품됐으며 지난 9월5일까지 전시됐다.

문의 \_ 시 국제협력관실 440-2850

### 외국어고·과학고·국제학교 신설

2010년까지 우리시에 외국어고와 과학고 등 특수목적 고등학교 2곳과 국제학교 1곳이 각각 신설된다. 미추홀외고(가칭)는 남동구 소래 논현지구에 24학급, 720명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며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어 등 4개 학과가 개설된다. 또 수학과 과학영재 교육을 맡게 될 미추홀과학고(가칭)는 계양구 박촌동 11번지 일대에 9학급, 180명 규모로 지어진다. 이들 학교는 200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2008년에 착공할 계획이다. 또 서구 가정동에는 2010년까지 인천에 사는 외국인자녀들을 위한 국제학교가 신설된다.

문의 \_ 시 기획관실 440-2170

### 경인방송 법인 정식출범

인천지역의 새 민영방송 사업자로 선정된 경인방송은 최대주주로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영안모자의 부천시 오정동 본사에 임시사옥을 마련하고 법인으로 공식출범했다. 또 이사회를 통해 백성학 영안모자 회장과 신현덕 경인 TV컨소시엄 대표를 공동대표로 선임했다. 경인방송은 내년 3월 시험방송을 거쳐 5월 본격적인 방송에 들어갈 예정이며 스튜디오 3개를 포함한 새 사옥을 우리시에 건립할 계획이다. 방송이 시작되면 경기·인천지역은 공중파로, 서울지역은 케이블로 시청할 수 있게 된다.

### 인천상륙작전 56주년 기념행사

지난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 56주년 기념행사가 우리시 곳곳에서 열렸다. 우리시와 해병전우회는 팔미도에서 인천상

### 영종도에 국제전시장 들어선다

세계적인 국제전시장이 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에 유치된다. 우리시는 지난 9월12일 이탈리아 피에라 밀라노사(Fiera Milano SpA)와 영종지구 산업·물류단지 내 20만여 평 부지에 연면적 13만평의 '피에라 밀라노 인천(Fiera Milano · Incheon)' 국제전시장 건설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전시장에는 이탈리아 본사의 컨셉을 도입해 가구와 패션, 건축·의료기, 자동차 등을 종합 전시할 계획이다. 피에라 밀라노는 세계적인 마케팅 네트워크를 통해 전시·판매·물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21세기형 종합전시장이다. 우리시는 6000억원을 들여 2008년 전시장 건설에 들어가 2010년에 개장할 계획이다.







륙작전 참전 희생용사에 대한 해상 헌화식을 가졌으며 중구 자유공원 맥아더 장군 동상에도 헌화했다. 또 인천상륙작전 기념관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이상로 해병대사령관과 티센 주한 미 해병대사령관, 그리고 미국, 에티오피아 등 해외 참전용사 200여명과 각 참전용사단체, 현역군인 등이 참석해 전사들의 넋을 추모했다.

문의 \_ 시 총무과 440-2213

## 희망의 전화 129를 누르세요

우리는 생계형 사고나 가정해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예방적 복지사업인 '긴급지원제도'를 시행한다. 지난 3월24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8월말 현재 467건에 4억3천만원을 생계비와 의료비 등으로 지원했다. 서구가 우리시 전체 건수의 23%를 차지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긴급지원제도 대상자는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인한 소

득 상실, 가구 구성원에게 다른 소득원이 없을 때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시,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소득이 4인가족 기준 152만원 이하이며 재산은 9천5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긴급지원제도 체계는 희망의 전화 129번(보건복지콜센터)을 누르거나 시청과 구청,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신속한 현장조사를 거쳐 생계비 지원 등 필요한 조치가 취해진다.

문의 \_ 시 사회복지봉사과 440-2923

## 인천항 정보 한눈에 '쏘옥'

인천항만공사(IPA·사장 서정호)는 인천항의 모든 정보가 담긴 손바닥 크기의 지도를 새롭게 제작했다. 인천항 지도는 그동안 여러 차례 제작됐으나 리플릿 형태로 휴대가 간편하게 만들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항과 관련된 각종 정보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됐으며 손바닥보다 조금 큰 가로 10cm, 세로 22cm 크기로 펼쳤을 때는 A3 용지보다 더 큰 크기로 확대된다. 인천항 전체지도와 신항, 북항, 내항, 남항 등의



지도를 포함해 카페리 항로, 인천항 정기 운항표 등의 내용이 수록됐다. 국내외 홍보 마케팅용으로 제공될 이 지도는 한글과 영문판으로 각각 1,000부씩 제작됐으며 중국어판도 곧 제작할 예정이다.

문의 \_ 인천항만공사 890-8184

## 인천홍보관 최우수상 수상

지난 9월14일~17일 개최된 제9회 부산국제관광전에서 인천홍보관이 최우수부스운영상을 받았다. 국내외 30개국, 180여 기관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 인천관광공사(사장 최재근)가 운영한 인천홍보관이 차별되는 내용의 이벤트와 체험코너 운영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부스운영상을 수상했다. 특히 차이나타운 홍보 이벤트, 강화 고인돌 홍보이벤트, 인천관광기념품 시연·체험코너, 백령도 콩돌과 사꽃모래 전시·체험코너 등이 관람객의 눈길을 끌었다. 인천관광공사는 올해 제4회 대구국제관광전(최우수부스디자인상)과 제19회 한국국제관광전(최우수관광진흥상)에 이어 이번 제9회 부산국제관광전(최우수부스운영상)에서도 수상했다. 3번 연속 인천홍보관이 최우수상을 수상함으로써 인천이 관광



도시로 자리매김 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_ 인천시교육청 420-8226

도시로 자리매김 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_ 인천관광공사 220-5000

## 국내 최초 물류대학원 개원

건설교통부로부터 국내 최초로 물류전문교육기관으로 선정된 인하대 물류전문대학원이 지난 9월 6일 문을 열었다. 인하대 물류전문대학원은 국내 최고 수준의 교수진과 첨단교육시설을 갖추었으며 글로벌 물류강국을 실현하고 기업의 물류 및 물류공급망(SCM) 혁신을 선도할 경쟁력 있는 물류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교육과정은 물류 전문석·박사학위과정을 중심으로 글로벌 물류 전문석사과정, 글로벌 물류비즈니스 최고경영자과정 등이 있다. 글로벌물류 전문석사과정은 중견 물류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물류 MBA(경영

대학원)'로 9개 외국대학 교수들이 강사로 참여하며 강의는 영어로 진행된다. 건설교통부 및 싱가포르 물류협회와 물류전문교육 등의 교류협약을 체결한 이 대학원은 건교부로부터 오는 2010년까지 총 100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문의 \_ 인하대학교 860-7114

## 섬지역 폐교, 관광시설로 활용

학생수가 급격히 줄어 문을 닫은 웅진군의 폐교들이 관광시설과 주민 편의시설로 바뀐다. 웅진군은 폐교를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매입해 숙박시설, 팜스테이 등 관광시설과 주민복지 증진시설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 학생수 감소로 폐지된 섬지역 학교는 18곳으로 이중 10곳은 교육청이 청소년 수련시설과 연수시설 등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8곳은 방치돼 있다. 폐교 중에

서 소무의도의 용유초등학교 무의도분교와 장봉도의 도화초등학교 웅암분교 등은 섬 경관이 수려해 관광시설로 활용될 경우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문의 \_ 웅진군청 880-2114

## 재능대학 이기우 학장취임

이기우 전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이 재능대학 제5대 학장으로 선임됐다. 이 학장은 지난 8월31일 취임식을 통해 "그동안 교육부에서 일한 경험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학생들이 좀 더 수준 높은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학습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학장은 1985년 문교부 교육 행정사무관을 시작으로, 교육부 기획관리실장, 제6대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등을 역임했다.

문의 \_ 인천재능대학 890-7092

## 시의회 소식

### 제14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최

인천광역시의회(의장 박창규)는 2006년 9월 5일 제149회 1차 정례회 본회의를 개최해 9월 26일까지(22일간) 의정활동을 마쳤다. 9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8월 25일



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상정 처리됐던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인천광역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됐으며 개정 조례안에 따라 앞으로는 연간 총회의 일수가 140일 이내로 개정됐다. 조례정비특위 구성결의안 의결에 따라 9월 26일 제5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 9명이 선임되어 10월부터 실정에 맞지 않는 300여건의 조례 발굴 개정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제149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시정질문을 3일간 실시했고 200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2005회계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심사, 조례 등 30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 재래시장 활성화에 솔선 수범

인천광역시의회에서는 9월 12일 새마을금고에서 인천시장상인연합회에서 발행한 재래시장공동상품권 9백만원 상당어치를 구입했다. 의회에서는 이번에 구입한 재래시장공동상품권을 중추절 위문품으로 30여개 아동복지시설, 노인·장애인시설 등 불우시설에 지급할 예정이다. 재래시장 공동상품권은 재래시장살리기와 서민경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인천시장상인연합회에서 발행하고, 2006년 9월 1일부터 인천시 관내 전 새마을금고에서 판매하고 있다. 이번 공동상품권 구입은 재래시장에서 장보기를 적극 권장해 서민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솔선수범하고, 또한 구입한 상품권을 중추절 위문품으로 관내 불우시설에 지급함으로써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희망도시 인천을 건설하는데 앞장서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 자리에서 박창규 의장은 "공직자 및 각 기관·단체·기업체 등이 재래시장상품권 구매에 적극 참여하여 침체되어 있는 재래시장이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장터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의회에서도 다양한 방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인천광역시의회

## 교육청 소식

### 재미가 쏙쏙~ 방과후 교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우리시와 함께 맞벌이 부부와 소외계층 자녀들을 위한 초등학교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관내 초등학교 61개교에 31억3천9백만원을 투입해 유유 교실을 보육시설에 맞도록 리모델링해 아늑한 보육환경을 조성했다. 또 전문 보육교사를 채용해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전액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방과후 교실은 아동들에게 균형있는 식사와 간식을 제공하고, 숙제를 도와주는 보호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아동의 건강한 신체발달을 돕고,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기술과 공동생활에 필요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다. 교육청은 내년에도 초등학교의 방과후 교실 운영 학교수를 지금보다 50%이상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양적 확대와 더불어 보육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교육과 보육이 결합된 다양한 방과후 교실 프로그램과 자료를 보급할 예정이다.



## u-IT클러스터 추진 센터 개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청장 이환균)은 지난 9월 6일 송도 갯벌타워 광장에서 지역 국회의원, 정통부 국장, RFID(전파식별)/USN(Ubiquitous Sensor Network)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전산원 부설 ‘u-IT클러스터 추진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정통부 산하기관인 한국전산원과 우리시가 공동으로 RFID/USN 공유기반 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센터는 국내외 우수 기업 유치를 통해 송도의 동북아 RFID/USN 허브화 프로젝트 추진을 전담하고 국내 기업들이 제품개발, 시제품 조립, 시험 등을 할 수 있는 공유기반 시설 구축을 주관하게 된다. 또 공유기반 시설을 활용하여 클러스터 내에서 관련 기술을 선도할 국내외 우수기업들을 유치해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핀란드의 오울루와 같은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 국내 5개 대학 송도 입주희망

가천의대, 고려대, 서강대, 인하대, 중앙대 등 국내 5개 대학이 송도국제도시에 연구중심 대학원과 연구 R&D센터 등을 조성하겠다는 의사를 공식 표명했다. 경제청은 지난 8월말 송도국제도시 내 ‘국제학술연구단지 조성’을 위한 대학별 사업제안을 접수받은 결과 이들 대학이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제학술연구단지 조성사업은 송도 내 세계적인 산·학·연 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해 해외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기반조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경제청은 재정경제부와 실시중인 ‘국제학술연구단지 조성방안’ 용역결과가 나오는 올해말께 이들 학교 사업계획과 용역결과를 비교·검토해 유치대학을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송도국제도시 입주가 결정된 국내 대학은 연세대와 인천대 2곳이다. 연세대는 5.7 공구 28만평에 1만명의 학생을 수용할 캠퍼스를 오는 2010년 개교할 계획이고 인천대는 13만8천여평의 부지에 오는 2009년까지 새 캠퍼스를 마련해 이전할 예정이다.

## 베니스 건축비엔날레에 공식 초청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오는 10월 15일부터 개최되는 베니스 건축비엔날레에 공식 초청작으로 선정됐다. 한국토지

공사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혁신도시 개발모델로 평가받아 ‘2006년 베니스 건축비엔날레 특별전’에 공식 초청됐다고 밝혔다. 비엔날레 조직위원회 공식 초청작으로는 2004년 청계천 복원사업에 이어 두 번째로 선정된 것이다. 세계 최고 권위의 건축 작품전인 베니스 건축비엔날레는 올해 ‘도시-항구’를 주제로 이탈리아 팔레르모에서 개최되며 시드니, 샌프란시스코, 요코하마, 리버풀 등 세계 15개 도시의 개발프로젝트가 출품될 예정이다.

## 영종도에서 세계여자포켓볼대회 열려

경제자유구역청은 MBC와 함께 지난 9월14일 포켓볼 여왕을 가리는 ‘세계여자포켓볼대회’를 유치해 영종도 하얏트 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미국 당구 여자 포켓볼 무대에서 활약 중인 ‘검은 독거미’ 자넷 리를 비롯해 6명의 국내외 선수가 참가했다. 세계 최대 스포츠 방송기업인 ESPN의 스포츠이벤트인 이번 대회는 세계인들에게 업그레이드된 국제도시 인천의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는 기회였다. 특히 인천의 국제스포츠대회 개최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로 2014년 아시안게임 유치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 영국 산업지역 장관, 인천대교 방문

마가렛 호지(Margaret Hodge) 영국 통상산업부 산업지역 장관 일행이 지난 9월19일 인천대교 건설현장을 방문했다. 한·영 정보통신 기술협력 강화를 위해 방한한 호지장관은



은 영국의 대표적인 건설회사인 AMEC사가 건설 중인 인천대교를 방문해 건설현장을 둘러보며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날 방문에는 호지장관을 비롯해 영국통산부 에이비드 러브 유럽 국제담당관과 주한 영국대사관 가이 워링턴 대리대사 등 영국 정부 인사와 대사관 관계자 등 10여명이 동행했다.

# 어르신은 ‘실버’ 아닌 ‘골드’

글 • 김노수 (인천광역시 중앙도서관장)

얼마 전 신문기사에서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이 78.2세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또한 한국인의 평균수명 연장속도가 세계 최고수준이라고 합니다. 불과 20년전 69.8세에 비하면 평균수명이 무려 8년 넘게 늘어난 것입니다. 반대로 출생률은 세계 최저수준으로 이제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통계나 신문 기사를 보지 않더라도 가까운 주변, 집 근처, 공원 등 어디를 가나 너무나 많은 어르신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도서관도 예외는 아닙니다.

보다 나은 미래와 꿈을 위하여 열심히 공부하고자 길게 줄지어 선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가방을 들고 조용히 차례를 기다리며 서 계시는 분, 반백의 머리에 안경을 걸치고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며 자판과 씨름하시는 할아버지, 손자 손녀의 손을 잡고 아동실의 서가를 돌아다니며 책을 고르시는 할머니, 자료실의 책으로 가득 찬 서가를 돌아보며 좋아하는 분야의 책을 빌려가시는 분 등 정말 다양한 이유로 도서관을 찾아오는 많은 어르신들을 쉽게 보게 됩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을 언제부터인가 ‘실버’라는 말로 부르며, 여기저기에서 ‘실버교육’, ‘실버산업’, ‘실버세대’ 등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 단어들이 노인과 관련된 말이라는 것을 압니다. 아마도 노인들의 희끗희끗한 머리를 상징하여 실버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게 이해

는 하면서도 들을 때마다 왠지 뭔가 부족한 표현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골드’, ‘금빛’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더군요. ‘골드에이지’, ‘금빛교육’, ‘골드칼라’.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로 ‘2% 부족한’ 뭔가를 채워주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더구나 도서관을 찾아와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찾아 활용할 줄 아는 어르신들을 표현하기에는 딱 어울리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꼭 필요한 기관으로 도서관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후설계를 위해, 퇴직 이후의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도서관에 오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에서는 그동안 관심 있었던 분야의 책은 말할 것도 없고, 각종 신문과 잡지, 컴퓨터, 각종 프로그램 교육 등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며, 더구나 젊은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장소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도서관에 오시면 평범한 ‘실버인생’이 빛나는 ‘골드인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 모두의 인생이 그 자체로 의미있는 ‘금’처럼 아름답기를 소망합니다.



### 〈내 가슴에 새긴 한 구절〉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草場)에 누이시며  
설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義)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害)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 구약성서 《시편 23편》 중에서 -

\* 성경 속에 나오는 다윗의 시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나를 지켜주는 이가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두려워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끔 외로울 때나 슬플 때에 이 구절을 읽으며  
되새겨 봅니다. 그러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는  
것을 느낍니다. 새 힘이 솟아납니다.  
마음속에 믿음과 사랑이 가득한 사람의 삶은 항상  
필요로울 것이라고.....



## 신뢰가 바탕이 되는 시의회로...

이근학 운영위원장은 5대 의원들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의정활동을 펴나갈 수 있도록 뒷바라지하고 초선의원들이 전문가적 자질을 100%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를 마련토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위원장께서는 한나라당 인천시의원 대표의원과 시의회 운영위원장이라는 중책을 함께 맡고 계신데요, 앞으로 운영위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요?**

한나라당 인천시의원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장점을 살려 당과 시의회, 그리고 시 집행부가 긴밀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시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펼쳐나갈 수 있는 하드웨어 역할을 할 것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맞춰 시의원들이 자기계발을 통해 의원으로서의 역량을 키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의원들에게 필요한 연구회와 연찬회, 워크샵, 세미나 프로그램들을 만들 계획입니다.

**5대 1기 운영위원회를 이끌어 가는데 특별한 정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시민들에게 현실감있는 의정 활동을 보여드리기 위해 시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방송을 방영하도록 제안했습니다. 시의원은 시민들을 대표하고 대의하는 기관이므로 의원들의 활동을 현장감있고 투명하게 전달해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의석의 대부분을 한나라당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견제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시 집행부와의 관계는 어떻게 유지하실 것인지요?**

시 집행부에서 하는 일은 정당의 일과는 경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시 집행부는 시민을 위해 정책을 펴는 기관이고 시의회는 집행부에 대해 시민들을 대표해 견제하고 비판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런 의회 고유의 기능을 상실한다면 의회는 존재이유가 없어집니다. 집행부 견제와 감시라는 주요기능을 바탕으로 적대적인 관계가 아닌 시 집행부와 시 의회가 톱니바퀴처럼 우리시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유기적인 관계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닌 대안을 제시하고 집행부의 주요 현안을 함께 성공적으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직한 의정활동과 의원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21세기에 맞는 의원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의원들 스스로가 노력해야 합니다. 올해부터 유급제가 실시되기 때문에 의원들도 달라져야 하며 운영위원회에서는 의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의회와 공부하는 의회 분위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른 시·도위원들과의 만남을 통해 모범이 되는 사례들을 벤치마킹해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의회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

### 주요 프로필

중앙대학교 졸업 / 선인·풍기고등학교 교사(전) / 한국청소년동아리연맹 인천부총재(현) / 인천광역시 국제교류센터 이사(전) / 인천광역시의회 제4대2기 기획행정위원장/한나라당 인천시의원 대표의원

## 살고 싶은 우리고장 인천으로...

환경단체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최병덕 위원장은 공기, 수질 등 인천의 생태환경은 물론이고 문화환경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이 살고 싶은 도시 인천을 만드는 게 최대 목표다.



**5대 1기 기획행정위원장으로서는 위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지요?**

기획행정위원회는 시 본청과 시의회 살림을 이끌어가는 내무위원회로 처음 출발해 현재 시 기획관실을 비롯해 핵심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시정의 브레인이라 할 수 있는 주요 사업부서를 관장하는 위원회입니다. 인천시의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재정·인력·조직을 지원하겠습니다. 지난 4대때 1년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온 경험으로 집행부의 예산편성과정에서 많은 논의를 통해 방향을 제시하고 지방재정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집행부에서 각종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께서 보시는 인천의 10년 후 미래를 그린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경제자유구역과 도시재생사업 등 주요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된다면 2016년 쯤이면 동북아 중심의 항만, 물류, IT첨단산업, 관광 도시로서의 면모를 어느 정도 갖추게 될 것이며 그 완성도가 70~80%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한국을 언급했을 때 인천을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런 미래를 이뤄가기 위해서는 의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시의원들은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대화를 통해 활동하기 때문에 주민들과 우리시의 역점시책들에 대해 홍보대사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 집행부의 예산 집행이나 편성이 실정과 형편에 맞게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관리·감독하고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동반자적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또 인천은 유난히 출산율이 낮고 시민들이 정주하지 못하고 이주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살기 좋은 환경으로 가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화, 관광, 체육 등 기본이 되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동안 상대적으로 도외시됐던 환경, 복지, 청소년 분야에도 적극 신경 쓰겠습니다.

**시민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20년이 넘게 지방의회 활동이 있어왔음에도 시민들은 아직 시의회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방정부가 발전하려면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도 함께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시민여러분의 대변자 역할을 하는 의회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 주요 프로필

가천 미추홀봉사단 이사(현) / 인천녹색연합 자문위원(현) / 인천미래포럼 고문(현) / 인천광역시의회 제4대 2기 문교사회위원회 위원 / 제4대 3기 예산결산위원장



# 개항역사 지도 새롭게 그린다

근대사가 시작될 무렵 ‘바다’는 서구의 문명과 이어주는 유일한 통로였으며 그 창구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항구’다. 인천 내항은 120여 년전 우리나라의 개항이 이루어진 역사의 현장이었다. 내항중심의 재생사업은 우리시 도시재생사업이 추구하고 있는 1거점 2축 재생사업 중 1거점에 해당된다. 이 사업은 바다(Marine)와 시내 관광열차(Tram), 근대기념물(Museum City)등을 활용하는 MTM프로젝트다.

글·김미희 (본지 편집위원)

## | 관광+산업중심의 도시로 | 인천역·동인천역 주변 사업

인천역과 동인천역 주변은 개화기에 서양문물을 최초로 받아들인 우리시 대표적인 구도심으로 지역의 색깔을 분명하게 갖고 있는 곳이다.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정주해온 사람이라면 동네 구석구석에 영화속 장면처럼 추억을 남겨놓았을 것이다. 그런 추억과 역사를 주렁주렁 매달고 있는 인천역과 동인천역 주변사업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방식의, 혹은 문화와 역사성을 배제한 생뚱맞은 도시재생이 아니다. 이 두 곳은 역사와 문화, 그리고 상업적 활력과 아름다운 항구를 조망할 수 있는 경관 등 우수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다. 하지만 현재 입지조건이 열악하고 다른 도시에 비해 우위성과 자립성이 떨어지는 등 최근 공동화(空洞化)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다.

이런 구도심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인천역 주변** 440,300㎡ (133,200평)은 차이나타운과 월미도 등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관광시설과 숙박 등의 부대시설을 갖춘 관광중심의 복합도시로 새롭게 단장된다. **동인천역 주변** 287,900㎡ (87,100평)은 주거, 상업, 업무, 문화,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하는 상업중심의 복합도시로 개발된다.

한편 인천역은 수인선과 제2공항철도가, 동인천역은 제2외곽순환도로가 각각 통과할 예정이기 때문에 경인전철 역사와 교통망, 역사 주변 사업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시는 이러한 역할과 개성을 가진 역사(驛舍) 중심의 두개의 구도심을 개발해 구시가지의 중심성을 회복하고 주변 다른 도시와의 기능을 연계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

인천역·동인천역 주변 재생사업 모형



해 세계적으로 알려진 전문 설계회사인 일본 닛켄 설계사가 입체도시 계획분야의 설계를 맡았으며 지역 주민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지난 2004년부터 이미 시작된 이 사업은 2013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통합하는 기능까지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 120년 전으로 떠나는 시간여행 | 각국공원 창조적 복원사업

자유공원(각국공원) 일대를 걸으면 개항당시 인천의 모습을 파노라마처럼 펼쳐볼 수 있다. 개항당시 각국조계에는 영국, 독일, 러시아, 미국 등 서양인들이 모여 살았고 그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이다. 우리시는 당시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자유공원 일대의 외국인 사택과 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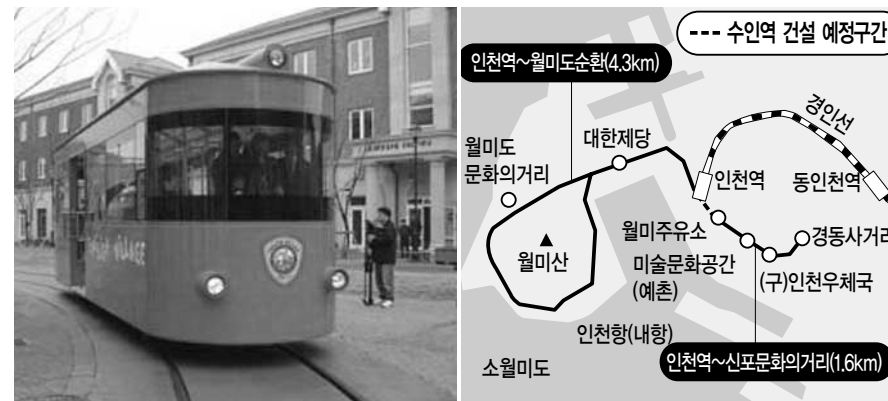


복원대상 건축물(좌측부터 존스톤별장, 세차양행사택, 영국영사관, 알렌별장, 러시아영사관)

등 5~8군데를 복원할 계획이다. 현재 복원 후보 건축물로 존스톤 별장, 세차양행사택, 영국영사관, 알렌별장, 러시아영사관 등이 정해졌다. 1905년 조계지를 중심으로한 국가들의 다양한 문화가 융합된 역사와 개항장의 특징을 살려 복원할 예정이다. 그 일대 68,555㎡ (약 20,566평)를 2011년까지 역사공원으로 조성하고 다문화 체험장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시는 4개국 대사관에 복원 대상 건축물의 설계도와 자료, 전시물 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아울러 월미도, 차이나타운으로 이어지는 관광인프라를 연결해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을 방침이다.

## | 전차타고 인천관광 즐겨요 | 관광전차 도입사업

우리시가 지난 7월, 월미도와 자유공원 등을 방문한 관광객 56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7%이상이 관광전차가 도입될 경우 이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수많은 관광객이 실제로 이 지역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인식하고 있으며 그에 걸맞는 관광인프라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민들의 욕구에 맞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우리시에서는 월미도~인천역~신포문화의 거리를



월미도 관광 노면 전차 구간 위치도

있는 약5.9km의 구간을 운행하는 관광전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인천역~월미도(4.3km)를 잇는 월미루프(Loop)와 인천역~예촌~신포문화의 거리(1.6km)를 잇는 실폐라인(Line)으로 나눠 전차가 설치된다. 월미루프 구간이 1단계 사업으로 2009년 7월까지 개통될 예정이며 2단계 사업인 실폐라인 구간은 2011년에 개통할 예정이다. ☀

## 공원이름, 그때그때 달랐어요~

‘창조적 복원사업’이 진행되는 자유공원은 1888년 만들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공원이다. 1897년 생긴 서울의 파고다공원(탑골공원)보다 9년이나 앞섰다. 응봉산 또는 응암산으로 불리는 자그마한 동산 위에 조성된 자유공원은 개항당시 서양 사람들이 한데 모여 살던 각국조계(各國租界)안에 공원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각국공원으로 불렸다. 그 뒤 일제에 의해 서공원으로 바뀌었고, 광복 후 만국공원으로 한동안 불렸다가 한국전쟁 후 맥아더 동상이 세워지면서 자유공원으로 불리게 됐다.



# 낙엽과 나만 아는 사색의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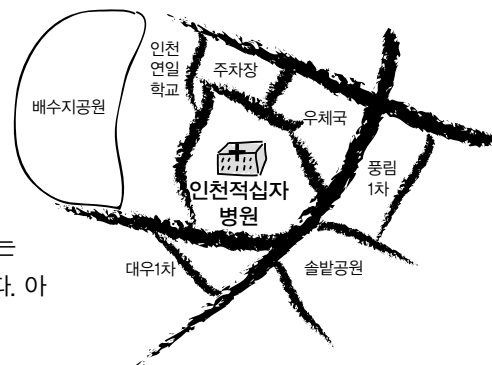
어느새 하늘은 한없이 높아져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뻥뻥한 건물들 사이로 녹색의 섬들이 울긋불긋 하나 둘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다. 잿빛 도심 속에서 번잡함을 잊고 고즈넉한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울타리 너머 비밀스러운 공간을 소개한다.

글 · 김미희(본지 편집위원) | 사진 · 김정식, 김성환(자유사진가)

## # 메마른 도시인의 감성까지 치료한다 | 인천적십자병원



노래를 다시 부르면 죽게 될지도 모른다는 주치의의 말도 무시한 채 그는 오히려 노래를 부르지 못하면 숨이 멎을 것 같다며 더 뜨거운 열정으로 노래했다. 통기타를 멘 채 눈을 살며시 감고 꿈꾸는 듯 노래하는 그의 모습이 떠오른다. '고독한 여자의 미소는 슬퍼'라는 곡은 요양시절 송도해변을 걷는 여인에게서 느낀 슬픔의 이미지를 그린 곡이다. 아직도 병원 구석구석에서 그의 노래들이 구슬프게 흘러나오는 듯하다.



## # 생활 속 정원의 발견 | 문성정보미디어고등학교

만수동에 위치한 문성정보미디어고등학교는 동네정원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곳이다. 교정에 들어서면 학교에 왔다고보다는 공원에 온 기분이다. 학생들은 아침에 새소리를 들으며 등교하고 점심때는 옛날 감로수(甘露水)가 샘솟았다는 우물터에 만든 감로정(亭)에 웅기종기 모여앉아 도시락을 까먹기도 하니 학생들에게 무릉도원이 따로 없다.

울창한 숲길,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아고라, 오솔길 사이로 군데군데 꾸며진 조각품과 장승, 여성의 표상이 되는 사임당 광장, 자라와 물고기들이 한가롭게 헤엄치는 연못 홍릉지, 그 위로 산뜻하게 꾸민 선홍교, 게다가 자연사박물관까지...그렇다보니 봄 가을엔 유치원생들이 소풍을 오기도 하고 동네 주민들도 내 집 정원 드나들듯 한다.

문성정보미디어학교는 가끔 TV화면에도 등장했는데 청소년 드라마 '나'와 '간썬선생과 별사탕'의 배경이 되었으며 내년 초 개봉예정인 영화 '아버지와 마리아와 나'도 학교 교정에서 촬영됐다.

이밖에도 최근 우리시가 학교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녹지공간이 늘고 있는 학교가 많다. 소래초등학교의 경우 생태연못, 물레방아, 아치형 나무다리 등을 설치해 교정 속 정원을 가꾸고 있다.



## 한걸음 더 자연사박물관

문성정보미디어고등학교에는 전교생과 교사들이 20년이상 '자연'을 모아 만든 자연사박물관이 있다. 국내외 희귀한 암석, 광물, 화석 및 동·식물 표본 등이 전시돼 있으며 초·중·고교생에 맞는 체험학습교실을 운영한다. 주중 오전10시부터 오후4시까지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며 단체 관람시 사전예약을 해야한다. 문의\_ 465-6503 [www.ims.hs.kr/museum/main.htm](http://www.ims.hs.kr/museum/main.ht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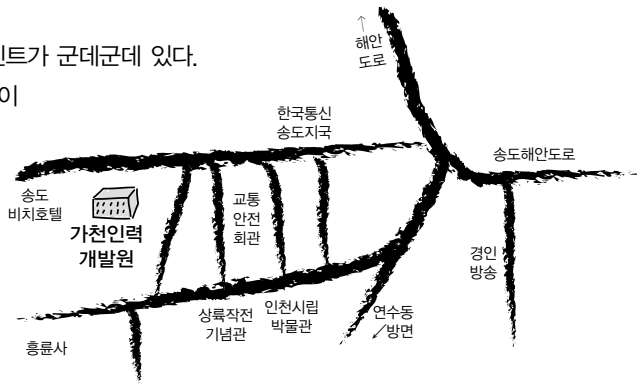


### # 언덕위에서 굽어보는 가을 | 가천인력개발원

주택과 음식점들이 빼곡히 들어선 송도에는 도심과 서해를 조망할 수 있는 포인트가 군데군데 있다.

그 중 언덕위에 위치한 가천인력개발원(833-0357)은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다. 노동부 지정 연수원인 이곳은 1992년에 개원해 그동안 5만명 이상이 이용해온 연수시설이자 대자연과 더불어 호연지기를 키우는 곳이다. 하지만 연수가 없을 때에는 동네 주민들과 시민들이 잠시 들렀다 쉬어갈 수 있도록 언제든지 개방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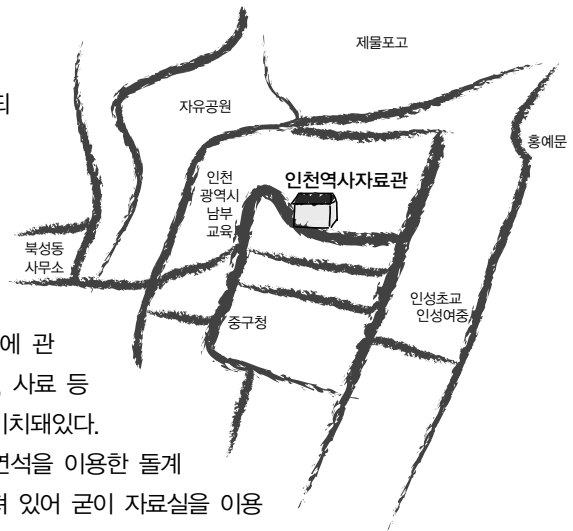
청량산과 마주해 있어 가을로 물드는 산의 모습을 고스란히 눈에 담을 수 있고 시선을 돌리면 송림 사이로 서해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몇점의 조각품들과 잘 꾸며진 조경, 오솔길 사이로 흐드러지게 핀 야생화, 구석구석에 실 수 있는 벤치가 마련돼 있다. 또 바로 옆에는 소나무 숲으로 이뤄진 공원과 작은 통로로 연결돼 있어 대자연의 품에 안긴 느낌이다. 도시 생활이 어땠느냐고, 그동안 많이 지쳤느냐고 자연이 먼저 말을 건넨다. 따사로운 햇살과 풀냄새, 흙냄새를 맡으며 나무와 꽃들과 무언의 대화로 소통하다보면 어느새 자연과 인간의 경계가 무너지고 흐트러진 마음이 치유된다.



### # 역사책과 함께 가을에 빠지다 | 인천시역사자료관

시내에서 가을 정취를 느끼고 싶다면 자유공원 기슭에 있는 우리시 역사자료관(440-3496~8)을 찾는 것도 좋다. 이 곳은 35년간 15명의 인천시장이 사용해온 공간이었지만 지난 2001년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 일제강점기때는 일본인 부호의 저택이었다가 광복후 '동양헌'이라는 양식집으로 사용되기도 했었다.

6백60평의 대지에 백여평 규모의 건물이 들어서 있는데 시사편찬사무실, 향토자료실, 열람실, 연구실이 마련됐다. 자료실에는 인천에 관한 단행본과 논문, 학술보고서, 사료 등 2천여 종이 넘는 향토자료가 비치돼있다. 넓은 정원과 구석구석에 자연석을 이용한 돌계단 등으로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어 굳이 자료실을 이용



하지 않더라도 뜰 안을 걸으며 가을 한 때를 보낼 수 있다.

또 파라솔과 벤치에 앉아 책을 읽거나 인천항을 내려다보며 사색을 즐길 수 있어 좋다. 결혼시즌이면 웨딩촬영 장소로 인기를 끌 정도로 조경이 잘 꾸며져 있다. 잘 정돈된 조경과 한옥이 함께 그려내는 풍경은 독특한 맛을 준다. 마치 고궁의 뜰에 와있는 듯한 착각도 들게 한다.

### # 성스러운 공간에서 만난 가을 | 주안8동 성당

성전의 돌이 누구에게나 허락된 공간이다손 치더라도 종교에 적을 두지 않는다면 교회나 성당, 사찰의 담장 너머 발을 들여놓는 일은 결코 쉽지가 않다. 하지만 주안8동 성당(421-3061)은 조금 다르다. 대문도 없거니와 울타리도 없어 누구나 부담없이 들어와 지친 마음과 몸을 달래며 쉴 수 있는 허락된 성역이다. 신도들은 물론이고 메마른 시멘트와 벽돌에 갇혀사는 지역주민에게 무료로 가을을 선물해주고 있다. 환경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이수일 신부는 5년전쯤 '담장허물기'를 시작으로 성당마당에 잘생긴 금송, 반송 등을 심어 도심속 '정글'의 느낌을 주었다. 한 칸에는 수목과 야생초를 심어 사철 꽃이 피고진다. 500여평 규모의 마당에는 잔디보호 시설을 마련해 잔디 위를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다. 어느 공원이냐 정원을 가든 '잔디에 들어가자 마시오'는 문구가 쓰여 있어 잔디를 밟고 싶었던 욕구를 은근히 눌러왔다면 그 작은 스트레스도 이곳에서는 한방에 날려버릴 수 있다. 한쪽에는 '쉐마정'이라는 정자가 마련돼 있고 정원 사이사이에 오솔길을 만들어 자연의 맨살에 직접 몸을 비벼볼 수 있다.



### 울타리 안 '비밀의 정원'

북적대는 도심 한복판에 숨통을 터주는 녹지공간이 있다. 인하대학교 후문에 위치한 해성보육원(872-3240 [www.hschild.or.kr](http://www.hschild.or.kr))에는 아이들과 함께 자연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 1894년 프랑스 수녀들이 세운 우리나라 최초의 보육원인 해성보육원에는 넓은 잔디밭과 아이들을 위한 야외공연장, 놀이터 등 조경이 잘 꾸며져 있다. 하지만 아이들의 안전문제로 출입이 제한돼 있다. 아이들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있는 자원봉사자들만이 그곳, 정원의 비밀을 알고 있다. 또 주안역 북광장 쪽에 1950년 창건된 사찰, 용화사는 명승지 같은 곳이다. 사찰에서는 실제로 카메라 촬영이 금지될 정도로 조경이 수려해 찾는 사람이 많다. 용화사 문화센터는 불교강좌를 비롯해 건강강좌, 논술강좌, 요리강좌 등 다양한 분야의 강좌를 개설하고 있다. 필요한 강좌가 있어 수강을 한다면 조경 감상은 덤이다. (872-2796 <http://yonghwasunwon.or.kr>)





# 붓으로 그리는 행복 지역사랑으로 이어간다

## 인천광역시 한국수채화협회



그림을 그려도 세월은 가고,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세월은 흘러간다. 그러나 그림을 그리면서 보낸 세월이 더  
행복한 사람들은 예술의 한 분야에 발을 담그고 자신만의 향기를 담은 그림에서  
아름다운 삶을 피워 올린다.

글 · 신은주(인화여고 국어교사) | 사진 · 김정식(자유사진가)

건너편 마을이 개발의 바람을 타고 아파트로 옷을 갈아입는 동안에도 그린벨트 보호막에서 시골 마을의 정겨운 분위기를 간직하고 있는 열우물(십정동)에는 사단법인 인천광역시 한국수채화협회 작업실이 자리하고 있다.

가을 하늘의 푸르름이 맑은 햇살의 따스함을 더 빛내주던 일요일, 작업실을 방문했을 때 회원 8명이 그림을 그리며 행복한 휴일의 여유를 누리고 있었다.

155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수채화협회의 이사장은 국제수채화연맹 총재를 역임한 이종무 교수이다. 이 교수는 외국에 나가서 다른 나라의 예술 작품을 보고, 또 작가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인천시민의 삶에서 먼 거리에 있는 문화예술이 생활속으로 들어오는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곤 했다.

공항에 내리면 먼저 인천의 모습을 만날 수 있는 그림이 걸려 있고, 집에는 그림 한 점을 걸어 놓고 생활할 수 있는 꿈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문화시민구축사업'의 탄생배경이다.

인천을 드러내는 그림이나 우리 것을 상징하는 그림을 작가들이 그려서 도록으로 만들어 학교에 보급을 한다. 다음에는 아이들이 그린 작품을 화장실이나 학교 벽면에 걸어서 아이들 스스로가 예술의 감상자이면서 창조자가 되는 기쁨을 누린다. 시민들이 그림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다 보면 생활속으로 예술은 들어오고, 그것이 자연스레 인천 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들으면서 인천시민이 문화시민으로 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채화협회는 1년에 여름과 겨울 두 번씩 국제 교류전에 참여한다. 처음에는 일본, 대만 등 아시아 국가들하고만 교류를 하다가 지금은 유럽, 미국까지 그 폭을 넓히고 있다. 개

인적으로 의미있는 전시이지만 한국을 대표한다는 자부심으로 참여하는 이 행사의 모든 경비는 회원들의 몫이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세계로 도약하는 인천사랑 미술대전', '선진문화 시민으로 도약하



는 미술종합 대축제'를 주관해 문화예술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회원들의 직업, 연령은 그들이 그리는 그림만큼이나 다양하지만 그림이 좋아서 모인 사람들은 자신들의 재능이 의미 있는 일에 쓰여지는 데는 한 목소리를 내어 힘을 모으고 있었다. 혼자만 즐기는 예술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삶에 기여하는 진정한 예술의 길을 걷고 있는 그들은 아름다운 사람들이었다.

회원들의 공식적인 만남은 매월 세 번째 일요일이고, 분기별로 네 번은 모여서 야외스케치도 하고 사진촬영도 하면서 친목을 도모하고 있었다.

회사에 다니면서 그림을 그리는 김병섭(64세)씨는 초등학교 때부터 좋아했던 그림을 지금까지 손에서 놓지 않고 있다. 소나무와 관련된 일을 하신 아버지의 영향으로 소나무가 가장 좋아서 많이 그린다고 했다.

근로자 문화예술제에서 '동트는 연안부두'로 수상한 작품이 실린 도록을 보여 주면서 행복한 웃음을 짓는 그를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이게 하는 것은 바로 '그림'이었다.

인터뷰 마무리로, 고추가 빨갭게 익어가는 밭에서 그 너머의 포도밭을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했다. 환한 미소를 짓는 회원들의 얼굴 위로 가을 햇살이 풍요롭게 쏟아져 내렸다. ☀







현 장 속 으 로 | 인 천 시 민 행 복 한 나 눔 장 터

## 우리집 애물단지 새 삶 얻다

8월 마지막 토요일. 신세계 백화점 앞 중앙공원에서 “사은품 드려요.” “즉석 세일합니다~”며 손님을 끄는 소리가 들린다. 여느 백화점이나 시장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구호들이니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하지만 또 다른 곳에서는 좀 색다른 인사말이 들린다. “감사합니다. 좋은 일에 쓰겠습니다.”라든가 “많이 파시고 기부금 많이 내세요.” 따위의 인사들이 그렇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

글 · 정경애(본지 편집위원) | 사진 · 김정식(자유사진가)

공원 입구에는 작은 무대가 마련돼 있고 공원 산책로를 따라 들어가니 양쪽으로 좌판이 벌여졌다. 쌍둥이 자매들이 벌려놓은 책과 옷가지들을 시작으로 직접 만든 비즈공예품, 머리핀이 있는가 하면 손때가 묻은 위인전과 책이 있고 바닥에 멋스럽게 디스플레이 돼 있는 청바지와 티셔츠, 그리고 신발에서 학용품, 장수풍뎅이에 이르기까지 만물상회가 따로 없다.

이 희한한 풍경은 ‘인천시민 행복한 나눔장터’의 8월 마지막 주 행사 모습이다.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이

웃들과 서로 나누어 사랑과 자원의 순환을 실천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우리시의 지원으로 YWCA에서 진행하는 행사다.

정영태군(조동초 1학년)은 학용품, 공룡미니어처 등과 함께 장수풍뎅이애벌레를 가지고 나왔다. 이 애벌레는 정군이 지난 2월 입학선물로 받은 장수풍뎅이가 낳은 57개의 알 중 일부. 엄마의 도움으로 먹이와 함께 애벌레를 넣은 통 11개를 가지고 온 것이다. 먹이통을 만드느라 자본이 투자된 터라 장터에서는 보기 드물게 5천원이라는 거금(?)의 가격이



매겨졌지만 장터를 찾은 초등학생들의 눈을 잡아끌기에는 충분했다. 어느새 5개를 판 정군의 어머니 김명숙씨(41·남동구 만수4동)는 “장터에 나오면 물건을 싸게 사고 팔 수 있어서 좋고 판매한 수익금으로 어려운 사람도 도울 수 있으니 너무 좋죠. 아이들에게는 재활용이라는 교육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겠죠? 오늘은 장사가 잘 됐으니 기금도 많이 내야 할 것 같아요.”라며 지폐가 가득한 지갑을 내 보인다.

오늘 장터에 나온 팀은 모두 130여개팀. 인터넷으로 사전 접수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단, 장터에서 판매되는 물건은 재활용품이 8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접수한 팀당 80점 내에서 판매할 수 있고 판매한 금액의 10%는 자율적으로 기부함에 넣도록 유도한다. YWCA는 수익금을 지난 연말에 난치병어린이 돕기를 위해 사용했다.

장터가 야외에서 열리다 보니 날씨가 관건. 하지만 앞으로는 걱정없다. 종합문화예술회관의 양해를 얻어 비가 오면 종합문화예술회관역에서 롯데백화점까지 이어지는 지하 통로에서 예정대로 행사를 치를 예정이다.

장터라고 해서 물건만 사고파는 것은 아니다. 공원입구 무대에서는 브라질 전통 무술인 까보예라가 공연되고 장터에

구경나왔던 아이들, 물건을 가지고 나온 어른들이 삼삼오오 무대 앞으로 모여들어 금세 흥겨운 문화판이 차려진다. 또 장터 곳곳에는 캐리커처 그려주기, 핸드폰 롤 페인팅, 골다공증 진단, 요술풀선, 보드게임 등의 부대행사가 열린다. 물론 참가비는 모두 무료.

YWCA의 고성란 사무총장은 “다양한 부대행사와 무대공연을 마련해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문화 공간,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는 축제 형식으로 행사를 끌어갈 것”이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장터에서 몇 가지 물건을 챙긴 이채은양(주안남초 3). 오늘 인형, 만화책, 채은이 옷 등을 팔아서 생긴 3천원으로 이황, 유관순 등의 위인전을 샀고 언니에게도 책을 사주었다. 판매 금액의 10%인 300원은 기부금함에 넣었음은 물론이다.

채은이의 물건이 다른 아이에게, 다른 아이의 것이 채은이에게로 자리바꿈을 하면서 여러 물건과 책은 다시 생명을 찾고, 어려운 우리 이웃은 사랑의 활력을 찾게 될 것이다.

나눔장터에 참여하려면 인터넷([www.happynaum.com](http://www.happynaum.com), 424-0524)을 통해 신청하면 되고 현장접수도 가능하다. 10월에는 14일과 28일에 장터가 열릴 예정이다. ☀

###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고

부평구청에서는 (사)지역복지센터 나눔과함께 주관으로 ‘행복한 부평 나눔장터’를 열고 있다. 행복한 부평 나눔장터도 자원을 재활용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나눔교육이 이뤄지는 공간이다. 판매금의 10%를 기증해야 하는 것 역시 우리시의 나눔장터와 다르지 않다. 9월 16일에 첫 번째 장터가 열렸고, 두 번째 장터는 10월 14일에 열릴 예정이다. 장소는 부평구청 앞마당. 부평 나눔장터는 어린이장터, 시민장터, 테마장터, 단체장터로 나뉘어 각각 인터넷(<http://nanum1004.or.kr/market/>, 433-6150)을 통해 신청하면 참가할 수 있다. 또한 아름다운가게를 통해서도 아나바다를 실천할 수 있다. 아름다운가게는 시민들로부터 안 쓰는 물건을 무상으로 기증받아 이를 손질해 싼값에 판매하고, 그 수익금은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주는 ‘순환과 나눔’의 운동이다. 나눔장터가 직접 판매를 통해 수익을 올리고 그것으로 기부를 하는 것과는 달리 아름다운가게는 물품 기부를 통해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다. 우리시의 아름다운 가게는 배다리 청과물시장 맞은편의 동인천점(773-0657)과 인천터미널 2층의 터미널점(424-7004), 삼산동 주공임대 아파트 상가에 있는 삼산점(508-8004), 산곡동 우성아파트 옆 산곡교회점(362-4001) 등 네 군데를 이용할 수 있다.



# 시몬, 잎새 저 버린 숲으로 가자

인천대공원은 사계절 다른 빛깔로 도시민들에게 자연을 선사하는 도심 속 자연쉼터다. 공원에서 휴식도 좋지만, 게서 발걸음을 멈춘다면 아쉬움이 남는다. 공원 율타리를 지나 뒷동네에 들어서면 또 다른 가을을 만날 수 있다. 가을을 노래하지 않은 시인이 있을까. 이 가을, 만의골을 거닐다 보면 누구나 시인이 될 것이다.

글 • 유동현 (본지 편집장) | 사진 • 김성환 (자유사진가)

## #느직한 마을

소래산에서 서쪽으로 뻗은 산줄기는 두 번 뭉쳐 관모산과 상아산을 솟게 했다. 야트막하게 솟은 관모산과 상아산 그리고 소래산은 아담한 골짜기 '만의골'과 '연락골'을 만들었다.

땅이름은 숙명적으로 타고 나는 듯하다. 만의골은 옛날에 이 마을이 깊은 산골의 요새지로서 군부대가 주둔했고 부대장격인 만호가 있어 만호골로 불리다가 만의(晩義)골로 변했다고 한다. 그 탓인가 지금도 9공수 부대가 골짜기 끝에 자리 잡고 있다.

또 다른 풀이도 있다. 조금 느슨하고 여유 있는 뜻이 담긴 순수 우리말인 '느직하다'라는 의미를 한자 '늦을 만(晩)자'를 써 만의골이 되었다는 설도 있다. 산으로 둘러싸여 안쪽 깊숙이 들어앉은 느직한 동네 탓에 지금도 그곳에 가면 발걸음이 느긋해진다. 메타세콰이어와 느티나무들이 사열하듯 줄지어 서있고 과수원과 농장들이 한가로운 농촌 풍경을 연출한다.

남동구는 운연동 만의골 입구에서 9공수부대 정문까지의 1.75km 길을 말끔하게 정돈해 '걸고 싶은 거리'로 만들었다. 낙엽 휘날리며 자전거로 달릴 수도 있고 가을바람 가르며 인라인스케이트로 달릴 수 있도록 한쪽을 붉은 우레탄 포장길로 냈다.

## #노란물 들은 마을

이 골짜기의 수호신은 마을 끝에 자리 잡은 장수동 은행나무이다. 높이 약 35m, 둘레 8m로 나이를 무려 800여년 '잡수신' 거목이다. 거꾸로 계산하면 고려 말에 생명을 얻었으니 지역의 산천초목 역사를 묵묵히 꿰뚫고 있으리라. 노쇠한 탓에 쇠가동에 지탱한 모습이 안타깝기도 하지만 아직도 그 앞에 서면 영험한 기운을 느낄 수 있다.

5개의 큰 가지에서 뻗은 수백개의 결가지로 형성된 이 노목은 얼마나 큰지 나무 하나가 흡사 작은 숲을 이룬 듯하다. 그늘 폭은 인근 밭과 개울을 노랗게 물들이다 못해 온 동네에 노란 물감을 부어 놓은 듯하다. 한창 때는 은행 열매가 떨어지면 우박 쏟아지듯 했다고 한다.

운연동 입구에서 200m 정도 들어가면 오른쪽으로 소래산 기슭으로 오르는 오솔길이 나온다. 이정표를 따라 오르면 김재로 묘가 나온다. 김재로는 조선 숙종과 영조에 걸쳐 승지, 참판, 우의정, 좌의정에 이어 최고의 관직인 영의정까지 오른 재상이다. 이 묘를 품고 있는 소래산은 인천 남동구와 시흥시에 걸쳐 있는 산으로 완만함과 급함이 적절히 섞여 있어

반나절 등반코스라 제격이다. 인근에서는 가장 높은 해발 299m로 정상에 서면 관모산, 상아산을 발아래 두고 인천의 시가지와 해안선 일부를 볼 수 있다.

## #미꾸라지 끓이는 마을

만의골과 이웃하고 있는 연락골에서는 사시사철 구수한 추어탕 국물 냄새가 마을을 덮는다. 이 마을도 이름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연락골(宴樂)은 '연회(宴會)하며 즐긴다(樂)'라는 뜻을 가진 마을이다. 얼마 전 이곳이 '추어마을'로 지정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추어탕을 먹으며 교제하면서 즐거움을 나누고 있다.

추어마을에는 현재 15곳의 추어탕집이 영업을 하고 있다. 15,6년 전 마을 구멍가게였던 '금메달'에서 동네사람들이 개울에서 잡은 미꾸라지를 끓여먹었는데 기막힌 그 맛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외지에서 그걸 사먹기 위해 사람들이 마을을 찾으면서 추어탕집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해 지금과 같은 음식타운을 형성했다.

연락골에는 예전에 음식마을이 있었다. '어두울 음(陰)'자를 쓰는 마을로 햇빛이 잘 들지 않는 어두운 골짜기 마을이었다. '셋골에서 새를 잡아 / 장작골에서 장작 피워 / 담방이에서 담방 담그어 / 음식에서 음식음실 먹자'라는 민요가 이 동네에 전해 온다. 세월이 한참 지났지만 아직도 사람들은 추어탕, 닭도리탕, 보신탕, 염소탕 등을 '음실음실' 먹기 위해 그렇게 만의골로, 연락골로 모여드는 모양이다. '가을 골짜기'를 거닐며 몸과 마음을 살피워 보자. ✨

**찾아가는 길** 인천대공원 안에서 가려면 눈썰매장 쪽에 있는 쪽문 매표소를 통과해 외곽순환고속도로 밑으로 걸어가면 된다. 자동차를 이용하면 남동정수장에서 시흥시 방면 도로를 타고 대공원 후문을 지나 첫 번째 삼거리에서 좌회전한다.



남동구청







### 제가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제가 세살때예요. 부모님이 엄격하셔서 잘못하면 저렇게 서서 벌세우시곤 했어요. 그럼 옆에서 어머니가 몰래 사진을 찍으셨죠. 그리고 항상 '잘못했어요'라고 시키곤했죠. 저는 워낙 반항적(?)이었기 때문에,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똥한 표정을 자유자재로 지어내곤 했죠. 물론 더더욱 매를 벌긴했지만...^o^  
**신효진 (계양구 효성1동)**

### 엽기 자매

늘 사고뭉치에 엉뚱한 행동과 말들을 일삼는 자매(재은,지원). 때 이른 더위에 아이스크림이 생각났던지 아이스크림을 사달라 졸라서 사주었더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맛이 있지만 손의 시련을 참지 못했던지 겨울에 끼는 장갑을 찾아 한쪽씩 끼고 열심히 먹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이상순 (서구 당하동)**



### 10년 전의 사진 속으로

오랜만에 빈 할아버지께서 주섬주섬 꺼내신 보물. 그것은 다름아닌 할아버지의 6남매와 13손자 손녀들의 사진이 가득한 앨범이었습니다. 10년전의 사진인데 감회가 새롭습니다.  
**박보희 (부평구 부개2동)**



### 말해도 이쁘지

가을이 깊어가는 작년 10월 친구네 가족과 인천대공원에 나들이를 갔다. 친구네 부부가 아들을 호뭇하게 바라보고 있다. 부모의 마음은 다 같은가 보다. '자기 자식은 뭘해도 이쁘다' 이것은 대를 이어 옮겨지는 병인듯 하다. 참 기분좋은 내리사랑의 병.  
**조성준 (동구 송현동)**



### 가을은 동화의 또다른 즐거움

가을이면 생각나는 운동회. 맛있는 솜사탕이 있어 더욱 즐겁습니다~  
**김훈희 (남동구 간석4동)**



### 여번게 머리 자르던 날

짜증을 있는대로 내더니~~ 사진을 찍는다고 하니 억지로 웃음을 자아낸다. 뽀뽀하고 순진한 그날을 기억하고 싶다.  
**박진수 (남동구 구월4동)**

### 우리그냥

사랑하게 해주세요. 네!

올 아들이 두돌이 되더니 드디어 사랑에 빠졌습니다. 우산 속 아이들이 눈물나도록 예쁘군요. 이 가을 자신의 첫 사랑을 한번쯤 떠올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권순우 (중구 북성동)**



### 장원에 도전하세요

〈굿모닝인천〉에서는 독자여러분의 사진을 공모합니다. 주제는 따로 없으며 계절에 맞는 추억의 사진이나 인천의 아름다운 모습, 사연이 담긴 사진 등이면 환영합니다. 사진과 함께 간단한 사연(100자 이내)을 적어 보내주세요.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문화상품권 1만원권 1장)을 보내드립니다. 특히 응모하신 작품 중에서 가장 재밌고 좋은 사진은 장원으로 뽑아 문화상품권 1만원권 3장을 드립니다.



### 길거리 자연보호 캠페인

작년 10월. 미술시간에 정성들여 만든 플래카드를 가지고 자연보호와 산불 예방에 앞장 서자고 부르짖던 아이들. 지금은 중학교에 들어가 다들 의젓해졌지만 초등학교시절 학교의 제일 큰 언니 오빠들로서 묵묵히 맡은 일들을 해내던 녀석들이 그림다.  
**김영화 (연수구 연수동)**



### 선재도에서

15년전 추석때 고향인 선재도에 내려가서 한복 입고 낚시를 하는 모습입니다. 동생과 옆집 동생도 있네요 ^^ 운동화가 참 인상적이죠?  
**이지영 (남동구 만수4동)**



### 그 옛날 맥아더 동상앞에서 친구들과

1957년에 서울에서 살았을 때 고등학교 2학년 시절 친구 4명과 함께 인천에 놀러가서 맥아더 장군 앞에서품을 잡고 찍은 사진입니다. 어깨에 뽕을 잔뜩 넣은 학생복과 바지는 그때 유행하던 나팔바지를 입고 있습니다. 이제는 70이 된 노인들이 되었겠지요. 그 친구들 만나보면 얼마나 즐거울까 생각합니다. 왼쪽 끝이 저입니다. 벌써 50년이 지났습니다. 그날이 그리군요.  
**전학영 (연수구 연수3동)**



인천 시민은 국제 시민 | 글로벌 매너 & 에티켓 배우기

## 테이블 매너의 꽃, 와인

유럽인들이 '와인 없는 식탁은 태양 없는 세상과 같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알카리성 음료인 와인은 육식이 주 요리인 서양식탁에서 빠져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이다.

서양식테이블 세팅시 물잔(Goblet 고블레)을 가장 먼 쪽(중앙 쪽)에 두는 이유도 식사 할 때 물을 마시지 말고 와인을 들라는 이유에서이다. 술은 음식을 더욱 맛있게 먹고 대화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윤활유로 '술을 먹기 위한 안주'보다는 '식사를 즐기 위한 술'로 생각한다.

와인을 마시기 전에는 입안의 음식을 다 삼키고 입 주위를 한번 닦은 후 마시도록 한다. 이는 입안의 음식물과 와인이 섞이게 되면 와인 특유의 풍미가 없어져 버리고, 기름기 같은 것이 와인 잔에 묻기 때문이다.

와인을 따라 줄때는 잔을 올리지 않는다. 단, 다 따라 준 뒤에는 반드시 'Thank you'라고 감사의 표시를 한다. 마실

때 잔의 몸통 부분을 감싸 쥐지 말고 가지부분(stem)을 살짝 쥐는다.

와인은 요리와 함께 마시기 시작해 요리와 함께 끝낸다. 즉 디저트가 나오기 전까지 마신다. 한번에 많이 들이지 말고 조금씩 음미하면서 마시며 스테이크 두 번에 와인 한번 정도로 마시면 된다.

한편, 와인이나 주류를 마시지 않는 사람이라면 글라스가 장자리에 가볍게 손을 얹고 '그만 되었다'는 표현으로 사양의 뜻을 전하면 된다. 가끔 글라스를 뒤집어 얹는 경우가 있는데 서양식 테이블 매너에서 이런 행동은 금기시되고 있으므로 주의하도록 한다. 글라스에 담긴 와인은 남기지 말고 다 마시는 것이 예의이다.☀

자료제공 • 파라다이스호텔 인천 (762-5181)

## 백포도주? 적포도주?

음식 종류에 따라 화이트와인과 레드와인이 구분되나 엄밀히 얘기하면 각자 취향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담백한 맛으로 먹는 생선, 조개류, 닭요리 등에는 쉼쉼하고 뒷맛이 개운한 드라이 백포도주가 어울린다. 백포도주는 차게 마시는 게 좋다. 육류요리의 감칠맛에는 향이 강한 적포도주가 제격이며 실내온도에서 마시는 것이 고유의 맛을 내는데 도움이 된다.





# 자장면과 김치의 만남

글·윤지선 (인천외고 1학년·청소년웹진 MOO 제6기청소년 기자)

고등학생이 되고 처음 맞은 여름방학은 학교 보충과 학원수업으로 꽉꽉 채워진 시간표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 인천국제교류센터에서 주최한 '2006 한·중 청소년교류한마당 홈스테이체험' 모집을 알게 되었고, 공부 외에 좋은 경험이라는 생각이 들어 참가하게 되었다.



**첫날,** 홈스테이 가족 대면식을 갖고 드디어 내 파트너를 만났다. 파트너가 된 중국인 소녀 총난은 나와 동갑인 17살이었다. 대면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 총난에게 간단한 한국어를 가르쳐주었는데 예상 외로 가르쳐준 단어들을 잘 외우고 한국어 발음까지 좋아서 나까지 기분이 좋아졌다. 첫날의 만남과 설렘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다.

**둘째날,** 인천도호부청사에서 한복 입기, 전통놀이 체험을 마치고 풀 하우스 촬영지로 향했다. 중국 학생들도 풀 하우스를 무척 좋아해 한류문화의 힘을 몸소 느낄 수 있었다. 이날은 큰 이벤트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환영 만찬회이다. 내가 이번 행사에서 인천학생 대표를 맡게 되어 소감문 발표와 장기자랑에 참여했다. 긴장해서 실수는 했지만 4박 5일 동안의 시간 중 만찬회 시간이 가장 인상 깊은 추억으로 남게 되었다.

**세째날,** 전날의 피곤함도 잊고 우리는 부평에 위치한 GM대우에서 영상물 관람 및 자동차생산 공장까지 견학을 마치고 점심식사로 삼계탕을 먹었다. 중국 사람들은 매운 음식은 못 먹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느 중국 학생이 삼계탕과 함께 고추를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고 모두들 깜짝 놀랐다. 점심식사 후 드디어 롯데월드로 출발했다. 놀이동산까지 둘러 좀 많은 시간이 소요되긴 하였지만 오랜만에 놀러가는 곳이었기 때문에 너무 신났고 좋은 추억들을 만들었다.

**네째날,** 우리 모두는 다 같이 강화도로 캠프를 떠났다. 전등사 견학 후에는 숙소인 강화 마니산 수련원에 입소해 1박2일 동안 새로운 추억들을 많이 만들었다. 도전 골든 벨과 명랑운동회 외에 저녁시간에는 레크리에이션 및 장기자랑 시간을 가졌다. 이 시간에는 다 함께 게임도 하면서 서로 우정을 쌓아갔다. 특히 진행자의 재치있는 입담은 모두를 즐겁게 만들었다. 그날 밤은 우리들의 마지막 밤이었다. 때문에 자는 사람 없이 모두들 게임도 하고 얘기도 하며 긴긴 밤을 새고 말았다.

**마지막 날,** 밤을 새서 그런지 아침에 모두들 얼굴이 피곤해보였다. 하지만 금방 기운을 차리고 퇴소식을 마쳤다. 마지막으로 인천국제공항에서 중국 친구들 환송을 끝으로 4박5일 동안의 여정에 마침표를 찍었다. 즐겁고 신났던 기억과 섭섭하고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하고 우리는 중국 친구들을 떠나보냈다. 행사 기간 동안 날씨가 너무 더워 몸이 많이 지쳤지만 어느 때보다 4박5일이 행복하고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먼저 멀리 중국에서 온 중국 친구들을 만나고 학창 시절의 좋은 추억거리를 만들 수 있게 되어 무척 기뻐다. 요즘 세계는 지구촌이라고 할 만큼 가까워지고 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홈스테이에 참가한 모든 학생들이 장래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행사는 끝났지만 한중 모든 친구들과 연락도 하며 우정도 쌓고 싶다. 끝으로 이번 행사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



# 가을은 결실의 계절... 투자는?

글·김전욱 차장 (HSBC은행 인천지점 PB 454-7013)

바야흐로 여름이 지나고 만물이 익어가는 계절인 가을이 왔다. 올 여름 모든 것을 녹여버릴 듯 했던 땀별더위도 언제 그랬냐는 듯 선선한 바람을 불어주는 가을이라는 계절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자취를 감춰버렸다.

올해 여름은 정말 몇 년 만에 찾아온 불볕 더위였다.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불볕더위로 인해 수십 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전국적인 폭염으로 인해 여러 번의 정전사태가 발생하기도 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호된 여름을 겪었다.

## 투자도 계절을 타야한다

그런데 과연 계절과 투자와의 상관관계는 어떠할까? 그동안의 선례를 볼 때 여름은 주식시장 및 기타 투자시장에도 그다지 좋은 시기는 아니었다. 연중 휴가가 몰리는 철이라는 점과 이로 인한 지출이 많은 시기라는 점 때문에 매년 5월에서 9월까지는 통계적으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 주식시장이었고 올해도 예외는 아니었다. 연초 이후 기세 좋게 상승하며 고점을 갱신해 가던 글로벌증시는 5월을 정점으로 상승국면에서 하락국면으로 접어들었고 하락세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여름이 시작되며 그 폭을 점차 키워갔다. 특히나 올해는 2003년 이후 글로벌증시에 큰 조정이 없었던 점과 미국의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한 금리인상이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가히 충격이라고 할 만큼 큰 폭의 하락을 시장에 안겨주었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의 성과를 추적한 자료에 의하면 5월부터 9월까지의 기간이 가장 낮은 수익률을 보여주었던 반면 10월부터 1월까지의 가을, 겨울철에 가장 성과가 좋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투자도 계절을 타서 해야한다는 논리로 이어진다. 그리고 적어도 펀드투자를 하는 투자자에 있어서는 전혀 근거 없는 얘기로만 받아들여지지는 않는 그럴듯한 논리이다. 그런데

이렇게 시기만 맞춰 투자할 것이 아니라 시기에 적절한 펀드상품을 골라서 투자한다면 금상첨화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 수확의 계절, 펀드로 배당 수확을

가을은 만물이 영어 가는 수확의 계절이라는 말은 펀드 시장에도 통용될 수 있는 말이다. 이는 펀드투자의 대상이 되는 기업들도 9월 이후 한해의 사업성과를 정리하며 연중 발생한 수익을 근거로 연말에 투자자에게 수확의 일정부분을 나누어 주는 소위 배당을 결정하는 시기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가을은 펀드투자에 있어서는 배당주펀드의 시기라 할 수 있다.

배당주펀드는 배당수익률이 높은 고배당 종목에 집중 투자해 예상한 배당수익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주식을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고 원하는 만큼 주식이 오르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당초 계획했던 대로 높은 배당을 받아 일반 주식형 펀드에 비해 훨씬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펀드이다. 쉽게 말해 대부분의 배당주펀드가 평균 4~5%의 고배당 종목들을 편입해서 운용하기 때문에 4~5%의 고정금리를 보장받고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실제로 시장에서 운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배당주펀드 수익률은 연 8~20%의 안정적인 수익률을 올리고 있다.

다사다난했던 올여름, 이제 힘들었던 기억들은 훌훌 털어버리고 우리 투자자들도 좋은 결실을 맺는 가을을 맞이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인천시청에서 만난 ‘미스 사이공’ 위엔 칸 링

글·김 류 (시인) | 사진·김보섭 (자유사진가)

먼저 그녀가 ‘미스 사이공’과는 관련이 전혀 없다는 말부터 해야겠다. 위엔 칸 링 양(嬢)이 월남 여성이니까 그 유명한 뮤지컬과 언뜻 연상이 되어서 그냥 멋대로 제목에 써 버린 것이다. 독자들은 이게 무슨 짓인가, 나무랄지도 모르지만 아오자이를 입은 채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는 이 고운 월남 처녀를 보는 순간 ‘미스 사이공’이 떠오른 것이다.

그렇다고 이 뮤지컬을 보았다거나 아니면 관심이나마 가졌었던 것도 아니다. 서울에서 나오는 한 일간지 광고에서 얼핏 헬기 그림과 함께 타이틀을 한번 읽어 본 정도가 미스 사이공에 대해 가지고 있는 지식의 총계이다. 그러니 내용도 알 까닭이 없다. 위엔 칸 링 양은 하다못해 사이공 출신도 아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녀를 ‘미스 사이공’으로 부르고 싶은 것이다. 또 달리 부를 만한 적당한 호칭도 없다.

인천시청에서 그녀를 만나기로 한 날은 좀 더웠다. 지긋지긋하게 땀을 흘린 데다가 그날따라 오전부터 무언가에 심사가 좀 뒤틀어져 있었던 까닭에 잔뜩 찌푸린 얼굴로 편집실에 들어섰다. 그리고 짐짓, 그녀가 별로 눈에 들지 않는 것처럼 행

동했다. 특히 시청으로 향해 가면서 이미 김이 빠진 것은 영어 때문이었다. 영어를 써야 하는데 혀가 굳어 버리는 그 빈약한 실력이라니!

그러다 문득, 그녀와 얼마 떨어지지 않은 의자에 앉아 도둑 눈짓으로 그녀의 옆얼굴을 훑쳐보고, 그만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여름 나라들’에 대한 편견과 틀려 있던 마음이 슬그머니 풀어졌던 것이다. 아이구, 콧날이 이처럼 오뎅하게 생긴 열대 문순 나라 처녀가 있었던가. 그냥 이려고 있을 수만 없는 일이다.

“훼어 아 유 후렴?”

“비에트남.”

이런 이런! 고작 입을 열어 떠듬거려 낸 말이 그만 다 알고 있는 문지 않아도 되는 쓸데없는 사실을 묻고 만 것이다. 이기가 막힌 질문에 그녀는 눈을 뚱그랗게 뜨고 ‘비에트남’을 정확히 발음했고, 답답하다는 듯 사진을 찍는 작가가 옆에서 재차 물어 주어서 그녀가 하이퐁 시 출신이라는 것을 알아낸 것이다.





하이퐁이라. 우리 인천시가 국제 자매 결연을 맺은 도시의 하나가 월남의 제3 도시이면서 북부 월남 최대의 항구인 하이퐁 시이고, 그래서 그녀가 하이퐁 시 공무원 신분으로 인천에 와 있는 것이다. 그녀가 출근하는 사무실은 시 국제협력관실. 우리로서는 나라와 인천을 홍보하는 것이고, 그녀의 임무는 자기 나라보다 앞선 우리를 벤치마킹하는 것이다. 인천에 체재하는 기간은 6개월. 4월에 왔더니, 10월이면 돌아가게 된다. 그러니까 그녀의 역할은 한국과 월남 두 나라 사이의 민간 외교관으로서 가교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아일 비 백 쏜.”

“오, 사운즈 굿.”

그녀가 이내 다시 올 거라는 말에, 좋다는, 그게 기쁘다는 의미로 내뱉은 이 말이 맞는지 어쩐지.

거기 여성으로는 키가 비교적 큰 편인데다가, 아오자이 속에 군살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러나 아무래도 좀 한국 여자보다는 ‘약(弱) S 라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은, 가녀린 몸매, 선명한 쌍꺼풀, 밝은 미소, 아, 그리고 양쪽 귀에 흰 풀꽃처럼 매달려 찰랑거리는 귀고리 따위, 이 매력적인 것들이 마침내 머리를 어질거리게 하고 입 안을 몹시 메마르게 하는 것이다.

“유, 미스 비에트남!”

“노우.”

“미스 사이공.”

“노우, 미스 하이퐁 인 인천.”

이 생글거리는 남국 여자의 표정 앞에 말을 잃는다. 검고 맑은 눈동자, 남쪽 나라 십자성... 불현듯 또 1992년 장 자끄 아노 감독이 만든 영화 ‘연인’이 떠오른 것도 그래서 었을 것이다. 불란서가 지배하고 있던 1920년대의 월남. 육체에 탐닉하던 중국인 청년과 불란서 소녀의 애정. the Young Girl 역을 맡은 제인 마치와 중국인 부자 the Chinaman 역의 양가휘. 그러나 이것도 틀린 연상이다. 영화 속 ‘소녀’는 불란서 소녀이고 위엔 칸 링 양은 월남 처녀가 아닌가. 그리고 하이퐁에서 대학을 나온 인텔리 여성이 다르다. 더구나 영화의 끝은, 파리의 다락방 창문 밖으로 눈이 펄펄 쏟아지는 장면이다.

이런 혼자 속생각을 그녀에게 들키지 않도록 얼버무리면서 슬며시 묻는다.

“헤브 유 에니 웨이버릿 포엠즈?”

말이 막히거나, 여자가 매우 매혹적일 때도 이런 질문을 던진다는 것을 아는 독자들은 알겠지. 애인과 잠시 헤어졌다는, 또 그것이 생각보다 길게 갈지도 모른다는, 그래서 굿 뉴스라고 농담을 던지고 끝내 ‘리메인 싱글’ 어찌구 하는 영판 형편없는 콩글리쉬로 결혼을 하지 말라는 뜻을 뱉어 놓자, 그녀가 알아들었는지 ‘오 마이 갓’을 외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내 이쪽의 주착을 웃음으로 누그러뜨리는데, 그 모습이 아주 귀엽고 대견하다.

“노우, 밧...”

그러면서 그녀는 이렇게 적는 것이다.

‘Thuyen va bien ctat nuoc, mua xuan nho nho...’

도무지 제대로 된 말 같지 않은, 무슨 암호인지 신호인지, 영어인지, 불어인지 알 수 없는 글을 그녀가 종이 위에 적어 보여 주는 것이다. 아마 자기네 나라 시인 것 같다. 솔직히 그녀는 시에 그다지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조금 실망스럽지만, 그러나 이 흑장미 같은 여자에게 시를 아니 보낼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월남으로 돌아가면 편지를 쓰기로 하고 그때 아름다운 우리 시를 한 편 적어 보내리라.

“인천 사람...”

떠들거리는 우리말로 시작한 한국인, 우리 인천인에 대한 소회를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개성적이고, 격정적이다, 그리고 근면하다, 특히 자기 일에 아주 전문적인 지식들을 가지고 있다, 한 마디로 한국 음식처럼 워밍(warm hot)하다’ 맞는 말일까.

시청 국제협력관실에서 조금 낯설게 보냈지만 6개월은 아주 재미있는 나날이었다. 퇴근해 돌아와서는 한 주일에 세 번 한국어 교습학원에 다니거나 TV로 한국어를 연습하는 것이 일과. 어떤 날은 친한 한국인 친구와 어울려 노래방에도 가고, 거리를 산보하기도 한다. 여기 와서 배운 우리 노래는 ‘아리랑’ ‘사랑해 당신을’ 같은 것들. 김치를 비롯해 냉면, 삼겹살, 닭갈비, 삼계탕, 볶음밥 등등 한국 음식은 뭐든지 다 좋아하고, 이런저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 인천 생활을 영영 잊지 못할 것이라며, 그렇게 재치 있게 빛나던 링 양의 눈동자가 잠시 안개에 싸이듯 흐려지는 것이다.

가본 곳도 많다. 경주도 춘천도 제주도도 울산도 포항도 다 다녀 보면서 진정 역동적이고 눈부신 발전을 이룩한 한국의 모습을 부럽게, 충분히 살폈다며, 문득 진한 애국자 같은 소리를 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니 인천 6개월이 아주 호사스럽기만 한 것은 아니고, 이렇게 견문을 넓히는 기회였다는 것이며, 그것이 인천시 당국과 시민들에게 무한한 감사를 보내는 이유라고. 사진을 찍는 링 양의 표정이 참으로 진지하다. 포즈도 아주 능숙하게 잘 잡는다. 사진 작가는 따라갈 수 없게 자꾸 장미 숲으로 그녀를 인도한다. 서운하지만 이제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해야 하는 것이다. 봄에 와서 시월에 돌아가는 남국 여인, 위엔 칸 링 양에게는 ‘나비부인’ 처럼 ‘미스 사이공’ 처럼 ‘떠나는 향기’만 남은 것이다. 시드는 장미의 향기만 남는 것이다. 그 때문에 이 가을이 참으로 충만하게 텅 비어 오는 것이다.





## 이제 유행이래~



세월 따라 유행도 멋도 다르지만 요즘 아이들의 옷차림은 이해 안되는 부분이 많다. 언젠가 지하철을 타고 가던중 아이들이 옷을 뒤집어 입고 나온 것이 아닌가? 회사 로고가 밖으로 나오고 옷 시접이 그 대로 보이니 ‘쫄쫄 얼마나 바쁘면 저렇게 뒤집어 입고 나왔나’라는 생각에 집에 돌아와 그런 이야기를 큰 뽀빠한테 하니 “엄마

그게 유행이야”라고 생똥스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닌가. 역시 세월이 빚어 놓은 유행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뭐 그런 경우가 유행인가 마음속으로만 혼자 말해 본적이 있다. 지금처럼 철철이 유행이 바뀌기 전인 결혼 전. 아마 지금처럼 철이 넘 어던 때, 맘먹고 장만한 가을 스웨터가 얼마나 마음에 들었던지. 섣뚱 마련하기에는 부담스러울 정도의 옷을 마련하고 몇 번 입어보고, 거울 보고, 색깔 다른 아래와 맞추어 보고... 그런데 다음날 뉘웃을 잤다. 엄마가 밥먹고 가라는 부름도 뒤로 하고 어제 달도록 입어보며 맞춰 보 았던 옷들과 함께 서둘러 나왔다. 버스를 타고, 내려 회사까지 걷는 길. 이상하게 버스부터 부러움을 담은 사람들의 시선과 함께, 걷는데도 뒤 통수가 따갑도록 내리 붓는 시선들. ‘역시 큰 맘 먹고 사길 잘했지, 멋진 옷은 사람을 만든다니까’ 하며 어제 새로산 옷을 자꾸 매만지며 서 둘러 회사로 향했다

역시 당당하게 사무실로 가며 옷에 쏟아지는 찬사에 어찌 답할까 생각 하는데 “미스김 옷이 뒤집혔네”라는 과장님의 한 마디. “어 ! 그러네 요.”라고 답변하고는 옷 자랑은커녕 얼른 벗어 옷걸이 신세를 저야 했 다. 그 후 한참동안 그 옷을 입지 못했다. 버스를 타도, 걷는 길에도 그 쏟아지는 찬사로 오해했던, 뒤집힌 옷을 안쓰러워하던 뉘웃선들이 다시 그날을 기억할까봐 회사 근처에서는 그 옷을 입지 못한 채 계절이 지났다.

가끔 그렇게 뒤집힌 것 같은 옷들, 찢어진 옷들을 보며 튀고 싶어하는 그들만의 정서를 이해해야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본다. 정말 나도 그랬던 것 같다.

김정례 (남구 주안7동)

## 아버지의 양복

나의 아버지. 어릴 적에는 아버지란 존재가 일하고 돈만 벌여 오시는 분 인줄 알았습니다. 학교에 가려고 눈을 뜨 어 느새 출근하고 안 계신 아버지. 그리고 학교 갔다 와 친구들과 밖에서 실컷 놀고 집에 들어와 잠을 자고 있으면 들어오시는 아버지. 그런 모습만 보고 살아왔으니 그렇게 느낄 수밖에요. 그렇게 세월이 가고 저는 어느새 스물여섯이라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지요.



결혼식을 준비할 무렵. 아버지의 양복을 준비하려고 아버지에게 양복을 맞추러 가자고 했지요. 그러자 아버지는 “괜찮다. 그냥 입던거 입으면 되니 그 돈 아껴 너 필요한거 사거라. 결혼 준비에 돈도 많이 들어 가는데 내가 많이 도와주지 못해 미안하구나.” 하셨습니다. 전 사실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실 줄 알고 있었습니다. 살아오면서 돈을 벌어서 주실 줄만 아셨지 정작 당신을 위해선 궁색했던 아버지. 그러나 결혼자금에 많이 부족했던 터라 철없는 저는 “그럼 그냥 있는 거 입으세요”라고 말하곤 안방에 있는 아버지의 옷장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불효자의 한숨을 내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옷장 안에는 정말 아버지가 입던 양복 두벌이 들어있었습니다. 단 두 벌... 어릴적 보던 아버지의 양복, 10년도 훨씬 넘어 말 그대로 촌스럽기 짝이 없는 아버지의 양복. 지금은 배불뚝이 사장님이 되어서 들어가 지도 않을 듯한 양복, 이런 양복을 어떻게 다시 입으신다고... 주저앉아 한숨만 쉬고 있을 무렵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아버지가 그럼 지금껏 제대로 된 양복 하나 없이 사신거구나 생각해보니 소위 남들 말하는 노가다에 요식업계에 종사하시다보니 남들처럼 겉멋있게 양복을 입으실 기회가 없었구나... 이런저런 생각이 머릿속에 어른거렸습니다.

저는 얼른 아버지를 모시고 양복점에 가서 비싸진 않지만 정성스럽게 만든 양복 한 벌을 사드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결혼식 날. 양복 입으신 아버지의 모습은 매일 가운만 입고 일하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아닌 딸의 결혼을 바라보는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아버지의 모습이셨습니다. 옷이 날개라더니 딱 그 말이 맞는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결혼식 날 한번 입은 양복은 또 어차피 옷장 안에서 몇 년간 숨죽이고 있을지 모르지만 아마도 그 양복을 보면 그날의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릴 듯 합니다.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사셨던 아버지에게 이제는 조금씩 효도하고 살아야겠습니다.

윤서연 (남구 주안6동)

## 엄마의 뜨개 옷

“엄마 추석이니까 주황색 원피스 사주세요.” 지금부터 32년 전 엄마와 시장에 갔던 나는 고집을 부리며 옷가게 앞에 서있었다. 그 때는 새 옷을 얻어 입을 수 있는 때가 설날, 추석, 생일, 소풍 정도였으니까 어떻게 하든 한 벌 얻어 입어야 했다. 그래서 명절이 지난 다음날 등교를 하면 아이들이 거의 새 옷을 입고 있었고 그 중 몇 아이는 옷이 똑같기도 했다. 아무튼 아무 말씀도 안하시고 엄마는 집으로 향하셨다. 나는 입을 썩 내밀고 터덜터덜 뒤쫓아 가는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엄마는 당신의 스웨터를 푸셨다. “세란아, 이실에 새 실 섞어서 엄마가 원피스 떠줄게”. 나는 서러워서 눈물을 흘렸다. “엄마는 맨날 떠준대, 난 떠준 옷 싫어. 예쁜 시장 원피스 사줘요.” 이제 칠순이 가까운 어머니는 파킨슨병을 앓고 있어 더 이상 뜨개질을 못하신다. 다만 나는 어머니가 떠주신 다섯 벌의 옷만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다.

오세란 (서구 원당동)



## 추석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시골에 살았습니다. 지금 도시에서 산 삶보다 시골 삶이 삼분의 일밖에 되지 않는데도 자꾸만 시골생각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하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추억이 많아서인가 봅니다. 어렸을 때 시골생활은 정말 저에게 보물과 재산입니다. 너무나 보고 싶고 가고 싶은 시골.

그때는 그게 행복인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생활이었던 것 같습니다.

추석명절이 다가오던 때가 생깁니다. 할머니와 엄마가 떡을 하려고 쌀을 불려서 깨끗이 씻어서는 경운기를 타고 다른 동네에 가서 떡가루를 만들어 오셔서 이내 떡을 만드십니다. 먹음직스런 모양과 색깔, 냄새가 정말 좋습니다. 명절이면 도시에 돈벌러 나갔던 고모와 삼촌이 내려오셔서 이내 즐거운 가족모임이 되곤 했습니다. 특히 고모들은 그동안 땀 흘려 번 돈으로 내 추석빔을 사오곤 했습니다. 그 새 옷을 입어 보노라면 어찌 그리 즐거웠던지 어깨춤이 덩실덩실 나왔습니다. 자주색 원피스였는데 뒤통에는 조끼도 달려있고, 치마는 공주처럼 우아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마치 공주가 된 것처럼 기뻛고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아름다운 옷을 입고 저는 친구들에게 가서 자랑을 하고 으쓱대곤 했지요. 친구들도 저마다 친척이나 형제자매가 옷을 사왔으며 자랑을 했지요. 마을은 잔치가 벌어진 것처럼 시끌벅적했고 오랜만에 모인 형제자매들이 이야기보따리를 풀어놓곤 했습니다. 우리는 덩달아 신이 나고 저녁에는 까만 하늘에 떠있는 하얀 둥근달을 보며 소원을 빌고 강강술래를 하며 기뻛했습니다. 그때 그 시절이 너무 그립습니다. 뒷동산에 밤나무가 토실토실 영근 알밤을 토해낼 때면 너무나 맛있고 구수했습니다.

아득한 저편너머로 나의 추억은 이제 조금씩 멀어져 가려합니다. 여유가 되면 다시 한번 고향에 다녀오고 싶습니다. 그리운 나의 고향은 저를 푸근하고 넉넉하게 반가운 마음으로 맞아주겠죠. 역시 마음을 환하게 비춰주는 고향은 영원히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박미영 (연수구 옥련동)



## 내 인생 최고의 옷

나는 일남 삼녀 중 맏딸이다. 오빠 그리고 내 밑으로 여동생 둘이 있다. 7.80년대 우리나라가 요즘처럼 잘 살지 못했을 때 옷을 사서 입는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때 나와 동생은 사립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 교복을 입고 학교에 다녀야 했다. 그러나 친구들은 교복을 맞추어서 입고 학교에 다녔지만 동생과 나는 엄마가 남대문시장에 가서 사가지고 오신 교복 비슷한 색과 옷감에 명찰만 박아서 입고 다녔다. 그렇게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더욱 힘이 들었다. 교복 자율화가 되면서 사복을 입고 다녀야 했기 때문이다. 오늘은 무엇을 입을까, 행복한 고민은커녕 매일 똑같은 옷을 입고 다녀서 내심 민망하기까지 했다. 고등학생 때는 남자 교생선생님이 오시게 되어서 우리 반 아이들은 모두 들떠 있었고 나름대로 예쁘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엄마에게 옷 사달라고 조르고 또 졸라서 엄마의 땀자돈을 뺏다시피 하여 돈을 얻을 수 있었다. 기쁨에 시장까지 한걸음에 날아서 옷가게를 기웃기 옷 거렸다. 고모나 이모들이 사 오시기는 했지만 내 마음대로 옷을 고르기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나는 엄마도 없이 내 마음에 드는 옷을 하나 사서 집으로 돌아왔다. 다음날 새로 산 옷을 입고 집을 나서는데 왜 그렇게도 어색하고 사람들이 나만 쳐다보는 것만 같아 쑥스러웠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순진했던 고교시절이었지만 지금의 아이들을 생각하면 웃음이 절로 나오는 추억이었다. 그 옷을 입고 등교하던 그날 우연히도 아님 필연인지도 모르지만 교생선생님과 몇몇 팬(?)들이 함께 사진을 찍었다. 아직 그 사진이 나의 앨범에 남아 있어 그때 그 일을 생각하며 엄마를 조르던 철없던 나의 모습에 웃음이 절로 나온다.

이제는 나도 엄마가 되었기에 예쁜 딸은 아니지만 잘 생긴 아들 둘과 함께 늘 옷을 사 줄 수 없어 여기저기서 대물림 받고 있다. 세탁 잘 해서 번쩍번쩍 윤이 나는 옷을 입고 겉모양보다는 내면에 더욱 충실하는 삶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변미성 (서구 가좌2동)



## 다음달 글의 테마는 ‘차(車)’

다음달 테마는 ‘차(車)’입니다. 차에 얽힌 재미있는 에피소드나 사연을 글로 보내주세요(200자 원고지 3매). 사진은 주제와 관계없이 계절과 어울리는 재미있고 사연이 담긴 작품을 보내주세요. 책에 실린 분께는 작은 선물(문화상품권 1만원권 1장)을 보내드립니다. 게재된 사진을 돌려받기 원하시는 분에게는 돌려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실 곳** \_ 우편번호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25(구월동 1138번지) 인천광역시청 공보관실 <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당자 앞 / 인터넷 신청 : <http://goodmorning.incheon.go.kr> → 독자마당에 올려주세요. 마감은 10월 16일까지입니다. 응모하시는 분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접수가 됩니다. (문의 \_ 440-2072)



### 2006년 10월 무료검진 안내

인천광역시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시민 보건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의료소외계층 및 시민에게 무료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기간 및 장소** :
  - 10월 16일(월)~10월 20일(금) 인천광역시의료원 2층 치과
  - 10월 23일(월)~10월 27일(금) 인천광역시의료원 2층 산부인과
- 검진명** : 구강검진 / 자궁경부암 검사
- 검진인원** : 구강검진 50 명 / 자궁경부암 검사 100명
- 진료시간** : 오전 8시 30분~오후 4시 (치과는 오전 8시~12시에만 1 일 10명씩 무료검진 실시합니다)
  - ※신분증은 꼭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인천광역시 의료원 총무인사팀(580~6478, 580~6651~5 )

### 남동정수사업소 견학 안내

우리시 상수도사업본부 남동정수사업소에서는 생명의 근원인 물의 소 중함과 수돗물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을 위하여 물 홍보관, 수돗물 생산시설, 수돗물 PET병 물 생산시설을 개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남동정수사업소 위치** : 남동구 장수동 668번지
- 개방시간 및 휴관일**
  - 개방시간 : 오전10시~오후5시(토요일, 공휴일 오후 4시까지)
  - 휴관일 :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기간)
- ※ 단체관람은 사전에 예약 바랍니다.
- ※ 개별관람은 사전 예약없이 가능하나 오전에는 단체예약이 많은 관계로 되도록 오후시간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편** : 동암역 535번 → 동부교육청 앞 하차 → 도보 10분  
제물포역 33번 → 장수초등학교 앞 하차 → 도보 5분  
부평/송내역 103번 좌석버스 → 남동정수장 정문 하차

**예약 및 문의** \_ 남동정수사업소 홍보팀(720-2660)

### 동구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에 참여하세요

- 청소년문화놀이터**
  - 내용 :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제안하는 청소년놀이문화
  - 언제 : 10월 28일(토) 오후3시~오후5시
  - 어디서 : 동구청소년수련관 2층
  - 주요내용 : 올해의 청소년 선정, 인권 줄다리기, 청소년민감도 테스트 등
  - 참가자격 : 11세~19세 청소년이면 누구나
  - 신청방법 : 10월 21일까지 전화접수(761-1318)
- 청소년들의 밤 Party**
  - 내용 : 수련관King·Queen 선정, 파전뒤집기 대회, 청소년 Old&New 등
  - 언제 : 10월 28일(토) 오후5시~오후7시
  - 어디서 : 동구청소년수련관 2층
  - 혜택 : 각 코너마다의 상품, 친구들과의 추억, 자신감 등
  - 참가자격 : 13세~19세 청소년이면 누구나
  - 신청방법 : 10월 21일까지 전화 및 방문접수

- 무료 상담심리, 진로탐색검사 실시**
  - 일시 : 2006년 연중 실시
  - 장소 : 동구청소년수련관 2층
  - 대상 :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청소년 및 청소년이 포함된 가족
  - 내용 :
    - 청소년성격유형검사(MMTIC), 중· 고등학생 진로탐색검사 (Strong) 실시
    - 가족단위 성격유형검사 실시 및 관계개선 상담 등
  - 신청방법 : 전화 및 방문신청 (문화사업팀 김주영 761-1318)

#### 4. 주 5일 대바-마술이야기

- 일시 : 10월 14일(토) 오전10시
- 장소 : 동구청소년수련관 2층
- 대상 : 동구관내 중· 고등학생 선착순 15명
- 재료비 : 무료
- 내용 : 도구를 활용한 마술
- 접수 : 10월 11일(수)까지

#### 5. 나는야 챔피언! (연 만들기)

- 일시 : 10월 14일(토) 오후2시
- 장소 : 동구청소년수련관 2층
- 대상 : 동구관내 청소년(초4~고3) 선착순 30명
- 접수 : 10월 11일(수)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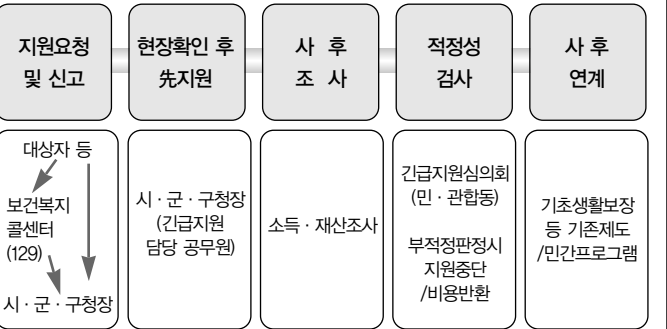
**문의** \_ 동구청소년수련관(777-7942~4 담당 오영애)

### 힘 내세요! 긴급지원제도가 있습니다

긴급지원제도란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로는 대처하기 어려웠던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긴급지원대상자** : 위기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자
- 위기 사유란**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원이 없을 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 화재 등으로 주택·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등

#### • 긴급지원 흐름도



**문의** \_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29

### 2006년 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공시

지방재정공시제도란 재정운용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전년도 재정운용상황,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주민 관심사항과, 지역특수성을 감안한 5건 이상의 주민숙원사업 등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민들에게 알기 쉽게 알려주는 제도로서 지난해에는 인천시에서 시범 실시하였고 금년부터는 전국 시·도, 시·군·구에서 본격 시행하는 제도이며, 공통공시와 특수공시로 구분됩니다.

- 공시일시** : 8월 31일
- 공시주체** : 인천광역시장(지방자치단체장)
- 공시방법** : 시홈페이지 게시(www.incheon.go.kr)
- 공시내용** :
  - 공통공시
    - '05년도 재정운영결과 → 결산, 채무현재액, 기금운용 등
    - 재정분석진단결과, 감사원의 감사결과, 주민관심항목 등
  - 특수공시 : 인천대교건설 등 7건

**문의** \_ 시 예산담당관실(440-2278)

### 2006년 건축문화제 열립니다

우리시는 1999년 ‘건축문화의 해’에 제1회 인천 건축전을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민·관·학이 함께하는 공동의 문화행사로 해마다 건축문화제를 열고 있습니다. 건축문화제는 인천광역시건축사회에서 주최하여 ‘건축문화제조직위원회’를 민간과 학계가 중심이 되어 구성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및 분야별 행사를 기획·추진하고 있습니다.

- 행사명칭** : 2006 인천건축문화제
- 기간** : 10월 27일(금)~11월 2일(목)
- 장소** : 예술회관역 연결통로
- 세부행사계획**
  - 본 전시 : 인천광역시 건축상 초대전, 회원 초대 특별전, 교수·건축가 초대전, 지역대학 학생 우수작품 초대전, 외부 초청 특별전 시회
  - 공모 전시 : 국제학생 건축 공모전 , 제4회 도시건축사진 공모전
  - 제7회 건축백일장
  - 주제 : 상생
  - 준비사항 : 지급재료(고무찰흙, 수수깡 등), 재활용품 준비(제작모형 불가)
  - 참가등록 : 10월 21일(토) 오후1시~2시(문학경기장 야외공연장)
  - 작품제작 : 10월 21일(토) 오후2시~5시(문학경기장 야외공연장)
  - 행사축하공연 : 사물놀이 등(남구소재 학교 협조)
  - 이벤트 : 건축 심포지움, 한국의 등대건축 60選

**문의** \_ 시 주택건축과 (440-3823), 인천시 건축사협회 (437-3381~4)

### 재래시장 상품권 이용하세요

우리시에서는 대형마트, 인터넷쇼핑몰 등 신소비 문화 확산으로 침체되고 있는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재래시장상품권 발행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민여러분께서 재래시장상품권을 사용하시면 침체된 재래시장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추석명절에는 선물용으로 재래시장상품권을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훈훈한 명절을 맞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지역	시장명	매장면적 및 점포	
		매장면적	점포
중구	인천종합어시장	7,632	500
중구	신포시장	3,308	185
중구	신흥시장	2,000	72
동구	중앙시장	10,956	149
동구	송현시장	7,439	130
남구	석바위시장	2,700	250
남구	토지금고시장	4,620	231
남구	용남시장	2,675	100
남구	인천남부종합시장	9,600	146
남구	용현시장	30,000	350
남구	학익종합시장	3,641	85
남구	도화종합시장	2,640	65
남구	신기시장	3,550	110
연수구	송도역전시장	4,519	55
연수구	옥련시장	6,947	142
남동구	구월시장	8,500	114
남동구	모래내시장	11,462	112
남동구	창대시장	4,773	180
남동구	만수시장	2,300	45
부평구	부평중앙지하상가	4,987	141
부평구	십정종합시장	2,211	74
부평구	진흥종합시장	3,105	96
부평구	부평종합시장		1,000
계양구	작전시장	4,400	117
계양구	병방시장	4,054	108
계양구	계산시장	5,572	140
서구	가좌시장	5,339	102
서구	중앙시장	5,042	82
서구	신거북시장	10,314	120
서구	강남시장	14,985	103

**문의** \_ 시 경제정책과(440-2793)

### 인천북부종합고용지원센터 이전합니다

지역주민들이 다양한 혜택을 보다 편리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인천북부종합고용지원센터를 확대, 개편하고 청사를 이전합니다.

- 일시** : 10월 2일(월)
- 위치** : 계양구 계산동 영산빌딩 2~5층(계양경찰서 옆)
- 내용** : 인천북부종합고용지원센터와 서인천고용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종합서비스 제공

**문의** \_ 인천북부종합고용지원센터(512-1978)



### 청소년 자원봉사 참가자 모집합니다

화수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수확의 계절 가을날 농촌 봉사활동을 함께 할 청소년을 모집합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일시 : 10월 14일, 15일(2회)
- 대상 : 청소년 60명
- 장소 : 김포농가
- 활동시간 : 일일 자원봉사 시간 8시간 부여
- 접수 : 선착순

또한 주 5일제 수업대비 문화교실로 제3회 생태체험학습을 실시합니다. 주 5일제 수업대비 생태체험학습은 4계절 테마로 자연의 소중함을 알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 일시 : 10월 14일(토) 오전9시30분~오후1시30분
- 대상 : 초등학교 1~4학년 20명(선착순 접수)
- 장소 : 꾸러기농장(서구 소재)
- 내용 : 밤줍기, 조롱박에 그림그리기, 향주머니 만들기 체험학습
- 참가비 : 6,000원

문의 \_ 화수청소년문화의집(담당자 김세중 : 762-2642)

### 인천세계청소년배드민턴선수권대회가 열립니다

세계최고의 인천국제공항과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동북아 중심 국제 도시로 발전을 하고 있는 우리 인천에서 오는 11월 '2006년 인천세계청소년배드민턴선수권대회'가 개최됩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우리 시의 국제적인 이미지를 제고하고 2014년 제17회 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한 대회로 활용할 것입니다.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대회명 : 2006 인천세계청소년배드민턴선수권대회  
(Incheon World Junior Badminton Championships 2006)
- 기간 : 11월 2일(목)~11월 11일(토)
- 장소 : 인천삼산월드체육관
- 주최 : 국제배드민턴연맹(IBF)
- 주관 : 인천광역시 / 대한배드민턴연맹/ 인천광역시체육회 / 인천광역시배드민턴협회
- 참가규모 : 50여개국 1,000명(선수 및 임원)
- 경기종목 : 개인 5개 종목 토너먼트 단체전 조별예선 및 결선토너먼트 (국가대항전)

문의 \_ 시 체육진흥과 (440-4102)

### 2006 추석맞이 민속 문화 축제 열립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한가위를 맞아 무형문화재 등 다양한 전통 민속 공연 및 민속놀이 체험마당을 엽니다. 고향을 찾거나 떠나는 시민들의 마음을 달래고 특히 우리시의 지역 특성상 고향을 찾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대동 한마당축제와 민속놀이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전통 민속 문화 도시로서 인천의 위상을 새롭게 하기위해 추석맞이 민속 문화 축제가 열립니다.

- 기간 : 10월 7일(토) 오전 11시~오후 6시
- 장소 : 인천도호부청사
- 주관 : 사)서해안풍어제보존회
- 행사내용 : 공연마당, 전통 민속놀이 체험, 민속놀이 대회 등

구 분	시 간	내 용
공연행사	13:00	사물놀이 풍물패
	13:30	서해안풍어제
	14:30	삼현육각(화관무, 한량무,교방무,화향무)
	15:30	마 임
	16:30	통소와 사자춤
민속 놀이대회	13:00	제기대회
	14:00	투호대회
	15:00	윷대회
	16:00	송편빚기대회
	17:00	밤까기대회
민속놀이 체험	11:00 ~18:00	투호놀이/널뛰기/전통혼례복입고 사진찍기/다듬이질 맷돌돌리기/팽이치기/굴렁쇠굴리기/연날리기 지게치기/절구질하기/떡매치기/탈씨보기/형틀체험/젓상차려보기/목공예체험/제기만들기

문의 \_ 사)서해안풍어제 보존회(422-3492, 425-2692)



### 자원봉사활동 체험사례 공모합니다

우리시는 그간 묵묵히 대가없이 헌신 봉사한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사항을 '체험사례집'에 담아 범시민적으로 널리 파급·확산하여 자원봉사에 대한 시민의 인식과 참여를 더욱 드높여 행복한 인천공동체 건설에 기여하고자 '2006년도 자원봉사활동 체험사례'를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 공모기간 : 9월 18일(월)~10월17일(화)
- 공모대상 활동기간 : 2005년 10월~2006년 9월
- 참가대상 : 인천광역시민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를 원칙으로 함. 단, 인천소재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나 인천소재 직장에 재직중으로 인천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도 인정함.
- 공모구분 : 2개 부문(일반부(대학생 포함), 청소년부(중·고등학생포함))
- 모집분야 : 자원봉사활동 모든 분야 (사회복지, 문화·예술·관광·체육, 환경보전 및 자연정화, 청소년 육성보호, 재난재해 복구지원 등)
- 응모방법
  - 내용 : A4용지 3~5매정도 (12포인트 크기-표지제외) 분량의 산문 형식으로 작성하되, 봉사활동장면 사진 1~2매 첨부 가능
  - 접수방법 :
    - E-mail 접수 : pep747@incheon.go.kr 또는 volunteer-ic@hanmail.net
    - 우편접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1동 시청앞길 25호 인천광역시 청 사회복지봉사과 자원봉사팀
    - 방문접수 : 인천광역시 사회복지봉사과(자원봉사팀) / 인천광역시 종합자원봉사센터 (구월동 씨티은행 8층)
  - ※ 공모기간내 도착분(우편발송 포함)에 한하여 유효하며 제출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음.
- 발표 : 11월 1일 (개별 통지 및 시 홈페이지 게재)
- 시상 :
  - 최우수상(1명) : 인천광역시장 상장 (일반·청소년 통합)
  - 우수상(3명) : 인천광역시장 상장 (일반2, 청소년1)
  - 장려상(6명) : 인천광역시장 상장 (일반4, 청소년2)
  - 가작(20명) : 인천광역시장 상장 (일반13,청소년7)
- ※ 최우수·우수상은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일(12월 6일)에 시상, 장려상·가작은 해당 군·구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전달함.
- 입상작품 권리 : 입상작품은 출품자가 동의한 것으로 보고 체험사례집에 게재되며 그 저작권은 인천광역시에 있음.
- 출품작품 작성시 유의사항
  - 첫째 페이지(표지) 상단 중간에 제목 기재하고 하단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기재(학생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교명, 학년 및 반(대학생은 학년 및 전공학과), 전화번호(일반, 휴대전화) 기재
  - 둘째 페이지부터 체험사례내용 작성 (상단 중간에 제목기재)
  - 글씨체 : 신명조 12포인트(한글), 여백 : 상하 20, 좌우15, 머리·교

리말10, 줄간격160  
문의 \_ 시 사회복지봉사과(440-2671~5), 시 종합자원봉사센터 (434-4105)

### 마라톤대회 참가하세요

2014년 아시안게임 유치를 염원하는 제4회 인천시민대화합 청소년금연건강마라톤 대회가 열립니다.

- 일시 : 10월 22일(일) 오전 9시30분~오후 12시30분
- 장소 : 인천문학경기장
- 대상 : 초·중·고·대학생 및 교사, 학부모 및 일반시민 총 15,000명
- 내용
  - 단축마라톤대회(5km, 10km)
  - 2014년 아시안게임 유치 및 자원봉사 실천 홍보부스 운영
  - 금연 캠페인, 폭력·흡연예방 학생작품 전시회, 문화예술 공연
  - 번외행사(바디페인팅, 매직풍선, 마사지, 금연침 시술, 비만측정테스트)

※행운권 추첨(디지털카메라, MP3, 맞춤형고급의자, S보드, 자전거)

- 코스 및 구간
  - 금연 마라톤 코스 10km : 문학경기장 → 동문 → 선학사거리 → 원인재역 → 동춘역(반환점) → 문학사거리 고가 밑 → 문학경기장
  - 건강 마라톤 코스 5km : 문학경기장 → 동문 → 선학 지하차도 끝(반환점) → 문학경기장
- 참가자 혜택
  - 마라톤 캠페인 봉사시간 4시간 인정
  - 마라톤 참가자 전원 당일 K리그 인천울산 15:00 경기 무료입장
- 참가신청
  - 온라인신청 : 센터 홈페이지(http://www.inyouthvol.net) 마라톤 대회 참가 신청란 이용 신청
  - 서류신청
    - 제출서류 : 참가 신청서(붙임 양식)
    - 장 소 :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 신청방법 : 모사 전송(Fax 833-8056) 및 E-mail (jiho0987@hanmail.net)
    - ※ 온라인 및 서류신청 후 반드시 참가비 입금 영수증 사본 Fax 전송
- 참가비 입금 : 신한 628-05-013480 (예금주: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 참가비 : 청소년(대학생 포함) 1인 1,000원, 성인 1인 10,000원
  - ※ 초·중·고등학교 단체 신청시 청소년 20명당 지도교사 1인 참가비 무료
- 개인준비물 : 기념 티셔츠 착용, 모자·수건 필히 지참
- 주의사항 : 인라인스케이트, 휠리스 착용 금지, 탈의실 및 물품보관실 없음

문의 \_ 시 사회복지봉사과 (440-2671~5),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883-8057~8)



좋은 부모되기 프로젝트

식물이 따사로운 햇살을 받고 자라는 것처럼 아이들에게는 부모의 사랑과 지지가 양분이 되어 자라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랑도 적절하게 전해지지 않으면 식물의 뿌리가 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의 사랑과 지지를 잘 전할 수 있을 지 배우는 '자녀의 힘을 북돋우는 부모되기 워크샵'이 열립니다.

- 일시 : 10월 20일(금)·21일(토) 오전10시~오후1시
- 대상 : 자녀지도와 청소년 상담에 관심이 있는 학부모, 상담관련 종사자 선착순 50명
- 장소 : 인천광역시청소년상담지원센터
- 비용 : 무 료

문의 \_ 인천광역시청소년상담지원센터(429-5562, 3)

2006 인천국제디자인페어 열립니다

인천 디자인의 수준을 한단계 업그레이드시켜줄 인천국제디자인페어가 열립니다.

특히 올해 디자인페어는 국제디자인공모전 작품전시 및 국제디자인포럼, 세계적인 디자인명품(알레시, 폴로스, 마지스)을 볼 수 있는 기회와 다양한 디자인이벤트를 통하여 디자인생활과 감각을 시민이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 일시 : 10월 17일(화)~10월26일(목)
- 장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전시실 전관, 국제회의장, 야외광장 및 예술회관지하역사
- 행사내용 : 인천국제디자인공모전, 국제디자인공모전, 월드베스트 디자인전, 세계 유명 디자인 영상전, 전국고등학생디자인공모전,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지원 결과물전, 국제디자인포럼 등
- 부대행사 : 디자인 퍼포먼스, 자기가 만드는 디자인, 디자인나무 키우기 등

문의 \_ 시 경제정책과(440-23823)

우리말과 한글을 사랑합시다

국립국어연구원은 국어 생활에 필요한 어문 규정을 개정하거나 표준말을 사정하고 국어사전을 편찬하는 등 교양있고 표준적인 언어생활의 기초를 다지며, 국어와 관련된 유산을 보존, 연구함으로써 국어 생활의 향상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여, 국어 생활의 향상을 꾀하기 위해 설립한 기관입니다.

국립국어연구원의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는 전국의 낙도, 벽지 등 국어에 관한 강좌를 듣고자 하는 곳이 있으면 직접 찾아가 강의하고 있습니다. 성인 30명 이상 50명 정도가 모이는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무료로 강의를 합니다.

문의 \_ 국립국어연구원(02-2669-9775)

제2회 연수구 주부 백일장 열립니다

맑은 가을하늘 아래에서 문학소녀의 모습이 돼보지 않으시렵니까. 사

단법인 전국주부교실 연수구지회에서는 제2회 연수구 주부 백일장을 마련합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잠시 문학소녀로 되돌아가 우리 주변의 이야기를 원고지에 담아봄이 어떨까요.



- 일시 : 10월12일(목) 오후2시
  - 장소 : 연수문화공원(연수3동)
  - 참가대상 : 연수구에 살고 있는 주부
  - 참가신청 : 10월10일(화) (당일 현장 접수 가능)
  - 접수처 : 전국주부교실 연수지회
    - 방문접수 : 연수구청 지하대강당 매주 수요일 오전10시-11시30분
    - 이메일 : yangks1303@hanmail.net
    - 전화 : 815-5529 / 016-273-5529(양경순)
    - 팩스 : 810-1105 (신청서 다운로드 [www.see2go.or.kr](http://www.see2go.or.kr))
  - 교육사랑21 BBS(게시판)
- ※ 참가하신 모든 분께 기념품을 드립니다.

제1회 인천 학생·시민 백일장 열립니다

인천문인협회에서는 가을을 맞아 시민들의 문예 창작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제1회 인천·시민 백일장을 개최합니다.

- 일시 : 10월 14일(토) 오후1시
- 장소 : 자유공원
- 참가대상 : 학생(초·중·고), 일반
- 참가부문 : 운문·산문
- 시상
  - 장원 - 초등부·중고등부·일반부 각 부문별 운문·산문 각 1명
  - 차상 - 초등부·중고등부·일반부 각 부문별 운문·산문 각 2명
  - 차하 - 초등부·중고등부·일반부 각 부문별 운문·산문 각 4명
  - 장려 - 초등부·중고등부·일반부 각 부문별 운문·산문 각 10명

문의 \_ 인천문인협회 (863-1797)

### 사업 고민 짝~악 펴드립니다

〈굿모닝인천〉은 매달 9만부씩 발행되어 인천시내의 공공기관과 각 가정에 배포되는 인천 최대의 인쇄매체입니다. 〈굿모닝인천〉의 유료광고가 여러분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광고료(1개월·컬러 기준)

표4 (맨뒤 겹표지)	표2 (앞표지 뒷장)	표3 (표4 앞면)
2,562,000원	1,665,000원	1,281,000원

※광고 게재 등 문의사항은 공보관실 편집팀(032-440-207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6회 인천소래포구축제 (10월11일~14일, 남동구 소래포구 일원, [www.soraefestival.com](http://www.soraefestival.com))

구 분	시간 \ 일정	10월11일(수)	10월12일(목)	10월13일(금)	10월14일(토)		
메 인 무 대		만남의 날	추억의 날	참여의 날	기약의 날		
	14:00~14:30	자유광장 (인천소재공연단체)	남사당 놀이 (바우덕이풍물단)	아줌마프린지 축제	비-보이 힙합댄스		
	14:30~15:00				소래포구노래자랑 (동별장기자랑) (초청가수 축하공연)		
	15:00~15:30						
	15:30~16:00						
	16:00~16:30	자매도시공연 (정선아리랑)	참여 레크레이션	남동화합,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			
	16:30~17:00	대북공연			북한예술단공연	타악퍼포먼스	
	17:00~17:30						
	17:30~18:00	남동구여성 합창단공연	개막퍼 레이드		참여레크레이션		경기FM 특집공개방송 (불꽃놀이)
	18:00~18:30	개 막 식 (남동구민상 시상)	남동구 생활체조 발표회 (에어로빅,스포츠탄스, 밸리댄스등)	소래포구아줌마 선발대회 (초청가수 축하공연)	폐 막 식		
	18:30~19:00						
	19:00~19:30	MBC 특집 공개방송 (불꽃놀이)			미개봉 영화시사회		
	19:30~20:00						
	20:00~20:30						
20:30~21:00							
21:00~							
소 래 포 구	10:00~15:00	서해안풍어제					
	15:00~18:00		망둥어낙시대회				
해 양 생 태 공 원	14:00~18:00				구민 글짓기대회 초중고 그림실기대회		
	11:00~18:00	소래옛모습 사진전, 소래포구 사진 촬영대회, 뽀뽀뽀 특별프로그램					
참 여 행사장	15:00~16:30	소래축제6회기념 700인분 어죽시식회	깜짝경매 및 수산물이벤트	깜짝경매 및 수산물이벤트 뽀빠이선발대회	수산물이벤트		
	13:00~18:00	추억의 소래장터(추억의 사진촬영,전통놀이마당 등),맥주시음회, 추억의 소달구지 체험					
부 대 행사장	14:00~21:00	사진촬영대회 출품작품 전시회, 캐릭터 풍선 나눠주기, 유아놀이존, 메이크업, 페이스페인팅 및 네일아트, 연만들기 체험					
상 설 행사장	11:00~21:00	소래포구 특산물 판매, 소래먹거리 장터, 자매도시 특산물 판매 · 전시					







## 얹히고설킨 세상살이

마치 얹히고설킨 고단한 세상살이를 보는 듯하다.  
단간방에 세들어 사는 집이 늘 때 마다 줄도 하나씩 늘어 간다.  
베를짜기의 씨줄과 날줄처럼 팽팽히 당겨져 있는 전깃줄이  
어린시절의 실뜨기놀이 모습처럼 보인다.  
그래, 인생은 실뜨기놀이와 같다.  
어느 줄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주옥~ 잘나가고  
그렇지 못하면 인생 '도로아미타불' 이다.

(동구 만석동에서)

글·사진 유동현 (본지 편집장)

<http://www.dcake.co.kr>

## 생일케익도 떡 이젠 떡으로!

전임, 취임, 축하, 창립, 생일, 약혼, 결혼기념일,  
선생님, 어르신 찾아뵈실 때, 운전면허증 딴 날,  
조금이라도 기분 좋은 날엔  
우리 떡, 떡케익, 떡 선물세트는  
특별한 날의 기쁨을 더해줍니다.



문의전화 1544-1582



예약주문이나 하루 전 주문하시면 인천, 부천 전 지역 무료배달해드리며, 일반떡, 혼수떡, 돌, 백일, 답례떡등 예약하시면 제작하여 무료배달해드립니다.